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세계유산축전 한국의 서원

# 국제학술대회

International Symposium 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 발표자료집 (토론 녹취록)

2020.10.29(목)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



영주 소수서원



함양 남계서원



경주 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



장성 필암서원



달성 도동서원



안동 병산서원



정읍 무성서원



논산 돈암서원



세계유산축전 한국의 서원

---

# 국제학술대회

---

발표자료집

2020. 10. 29







# · 목 차 ·

개회사	03
축사	04
행사 개요	05
행사 일정	06
1. 기조강연	07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의 의미와 과제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2. ‘한국 서원’의 가치(지성사)	
2.1 한국의 전통적 교육공간, 서원의 인문적 가치 이기동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17
2.2 타문화권에서 바라본 세계유산 한국 서원의 가치 Ekaterina Shafray(예카테리나 샤프레이)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7
3. 한국의 서원 보호	
3.1 한국의 서원, 지속 가능한 보호·관리 방안 한필원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47
3.2 한국의 서원, 역사 문화적 가치와 활용 방안 이해준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57
4. 종합 토론	



# ■ 개회사 ■

안녕하십니까.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이배용입니다.

오색단풍이 찬란한 아름다운 가을 10월에 세계유산축전 한국의 서원을 맞아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현대적 계승과 세계화”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정재숙 문화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한국의 서원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 문화재청, 14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분들과 9개 서원 유림분들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서원」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 ‘소통과 화합’, ‘나눔과 배려’의 정신과 교육적 이상의 귀중한 가치가 담겨져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그리하여 2019년 7월,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역사적인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무력해질 수 있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시대마다 우여곡절 속에서도 그 난관을 헤쳐 가며 부단히 이어왔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역할에 대한 희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뉴노멀 시대에 기본 사회시스템과 문화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속도 우선주의의 현실, 물질 중심의 가치관에 경종이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느리더라도 인간의 삶의 목적과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휴머니즘이 강화되는 뉴 르네상스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연의 순리를 깨닫고 인간성이 회복되고 생명존중과 문화창조의 정신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유엔헌장에 전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평화의 방벽도 사람들의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아름다운 문화를 창조하고 역지사지 배려하고 섬기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세계유산인 「한국의 서원」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 서원이 가진 소중한 가치를 더 많은 인류와 공유하며 「한국의 서원」, 서원의 정신과 교육적 이상의 가치를 새로운 시대의 이정표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AI도 대신할 수 없는 마음, 정신, 영혼을 간직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우리의 역할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진지한 소통의 장이 되어 소중한 지혜를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10.29.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이배용



# 축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장 정재숙입니다.

지난 7월 한 달간 9개 서원에서 「2020 세계유산축전-한국의 서원」을 성황리에 치르는데 이어 이렇게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 더없이 기쁜 마음입니다.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유는 한국의 성리학이 오늘날까지 교육과 사회적 관습 형태로 지속되고, 성리학 개념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청은 우리의 전통사상과 교육의 요람이었던 서원을 오늘날에 맞게 되살리고 조상들의 지혜와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살아 숨 쉬는 향교, 서원 만들기’를 2015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서원은 사람과 이야기로 가득한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일에는 이배용 이사장님께서 도산서원 제사에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첫 잔을 올리는 초헌관을 맡으셔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남성의 공간이던 서원의 빔장을 500년 만에 이사장님이 푸셨습니다.

이렇게 서원이 계속해서 현대에 맞는 변화를 추구하다 보면 국민 누구나 누리고 즐기는 문화명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1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한국의 서원의 현대적 계승과 세계화’입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서원의 현대적 계승과 세계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잘 경청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한국의 서원 통합 보존 관리단’ 이배용 이사장님과 관계자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 행사 개요 ▪

- 일 시 : 2020.10.29.(목) 10:00~16:00
- 목 적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대국민 가치 확산
- 주 제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현대적 계승과 세계화
- 주 최 : 문화재청
- 주 관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한국문화재재단



# ▪ 행사 일정 ▪

10월 29일(목) I 사회 : 박성진(서원관리단 사무국장)			
09:30~10:00	참가자 등록		
10:00~10:05	개회사	이배용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10:05~10:10	축 사	정재숙 (문화재청장)	
10:10~10:15	축 사	류한욱 (서원협의회 회장)	
10:15~10:20	기념촬영		
10:20~10:50	기조 강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의 의미와 과제	이상해 교수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10:50~11:20	(1부) ‘한국 서원’의 가치	한국의 전통적 교육공간, 서원의 인문적 가치	이기동 교수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11:20~11:50	(지성사)	타문화권에서 바라본 세계유산 한국 서원의 가치	예카테리나 샤프레이 교수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1:50~13:00	중 식		
13:00~13:30	(2부) 한국의 서원	한국의 서원, 지속 가능한 보호·관리 방안	한필원 교수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13:30~14:00	보호	한국의 서원, 역사 문화적 가치와 활용 방안	이해준 교수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14:00~14:10	휴 식		
14:10~15:40	(3부) 종합 토론	좌 장	이배용 이사장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패 널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 (전)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 (한국이름:이만열) 류한욱 회장 (서원협의회 회장) 조재모 교수 (경북대 교수) 이왕기 교수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 김종승 과장 (문화재청 활용정책과장) 류문규 사무관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사무관)
15:40~	폐 회		



#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목록 등재 의미와 과제

이 상 해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국민대학교 석좌교수)

## <요 약>

이 글은 문화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기 위한 구비 요건인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기반으로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의미, 그리고 향후 과제와 관련되는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짚어 본 것이다.

- 유네스코는 왜, 무엇에 근거하여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시행하는가
-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기 위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한국의 서원’은 어떠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추었는가
- ‘한국의 서원’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평가 기준인 진정성을 어떻게 구비하고 있는가
- ‘한국의 서원’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평가 기준인 완전성을 어떻게 충족하고 있는가
- ‘한국의 서원’은 유사 유산에 대한 비교 분석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입증되었는가

이상의 내용을 짚어본 후, 이 글의 마지막에서는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호와 관리 측면에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한 사항을 지켜야 함을 주지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세계유산위원회가 제시한 전략 목표를 수립하면 시민들이 ‘한국의 서원’의 보호와 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을 전환케 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한국의 서원’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교육 시설과 공유하는 것이 많지만, 성리학이 지향하는 사상이 서원에 반영된 건물 배치, 공간 구성, 경관 조성 등을 통해 한국화된 서원 건축의 속성을 형성한 증거를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인 서원은 교육적, 사회적 관행의 형태로 한국에서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 전통에 대한 특별한 증거가 되며, 그중에서도 ‘한국의 서원’은 중국의 성리학이 한국의 현지 조건에 맞도록 조정된 역사적 과정을 잘 보여 주며, 지역화된 과정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특별한 증거가 된다.

# Significance of Korean seowon being registered as World Heritage Sites and future challenges

Lee Sanghae

(honorary professor at Sungkyunkwan University, chair-professor at Kookmin University)

This report aims to provide a basic introduction to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that a site must possess to be registered as a World Heritage Site and explain how Korea’s seowon possess such value. For this introduction, the significance of Korea’s seowon having been listed as World Heritage Sites and future challenges will be explained.

- How does UNESCO select and list World Heritage Sites and upon what basis does it do so?
- What is the standard for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that is crucial for having a site designated as a World Heritage Site?
- What is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that Korea’s seowon possess?
- In what ways do Korea’s seowon possess authenticity, which is one of the standard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 How do Korea’s seowon meet the definition of “masterpiece,” as included in the UNESCO’s standard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 Was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Korea’s seowon proven by comparing them with similar World Heritage Sites?

At the end of this report, after having addressed all of the above questions related to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Korea’s seowon, the need for improvements in terms of protection and management that were pointed out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s addressed. Through the adoption and pursuit of the strategic goals of the Committee, local resident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take part i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seowon, while also improving their understanding of World Heritage Sites.

The report also summarizes how Korea’s seowon came to be registered as World Heritage Sites. Seowon have much in common with other traditional East Asian educa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those of China. However, since the building layout, dimensions, and environment of Korea’s seowon reflect Neo-Confucian ideas, their architecture is unique to Korea. In addition, as Neo-Confucian educational institutions, seowon represent Korea’s Neo-Confucian cultural tradition and form a crucial part of Korea’s educational and social traditions. Korea’s seowon reflect the history of how Chinese Neo-Confucianism was changed and localized according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



## 글을 시작하며

영주 소수서원, 함양 남계서원, 경주 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 장성 필암서원, 대구광역시 달성 도동서원, 안동 병산서원, 정읍 무성서원, 논산 돈암서원이 포함된 ‘한국의 서원’(세계유산 등재 명칭: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이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2019년 7월 개최된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낭보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 자리매김하였다.

조선시대 사림 문화의 정수는 물론이고, 성리학에 근거한 한국 유교문화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담겨있는 ‘한국의 서원’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것을 기점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세계유산목록 등재의 관건이 되는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약칭: OUV)는 ‘한국의 서원’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향후 과제를 조명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글은 문화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기 위한 구비 요건인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기반으로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의미, 그리고 향후 과제와 관련되는 몇 가지를 짚어 본 것이다.

## 유네스코는 왜, 무엇에 근거하여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시행하는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제도를 실시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구상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국가, 소유자, 그리고 세대를 초월하여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가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세계유산제도를 성립시킨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세계유산제도가 시행된 원인(遠因)은 서구 사회의 과학화, 산업화, 근대화 과정과 맞물려 있다. 17, 18세기를 거치면서 서구 사회는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인해 그 이전의 시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로 진입하고 있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인간들이 이룩한 역사적 유산이 철거, 훼손되거나 경시되어가는 것에 대한 보존, 보호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된 것은 이때부터다. 19세기에 이르러 서구사회에서는 인류가 만들어낸 역사상 중요한 유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크게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20세기에 들어서서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으로 인해 유산이 파괴되거나 크게 훼손되면서 유산의 보호와 보존은 이제 국제적인 차원에서 인류 공동의 해결 과제로 부상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세계유산제도가 실시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54년 이집트 나셀 정부가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한 수재(水災)를 막기 위해 강의 상류에 아스완하이댐을 건설하기로 함에 따라 아부심벨 신전을 포함한 고대 이집트의 유적들이 수몰되는 위기에 놓이자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 그리고 세계의 많은 지성인들과 전문가들이 이집트 정부에 댐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에 있다.

이를 계기로 유네스코는 지구상의 중요한 유산은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이에 유네스코는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1972년 제17차 총회에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World Heritage Convention,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여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 관리하여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유산을 정하기 위해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시행하게 된다.

세계유산협약 서문에는 세계유산목록 등재에 대한 목적과 정신이 잘 집약되어 있다. 지구상 모든 국가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세월의 흐름으로 인하여 쇠락하거나 파괴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더 빨리 훼손되고 사라질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에 대해 인류 모두의 유산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집약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과 정신을 배경으로 해서 세계유산제도가 태동되었기 때문에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유산은 반드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유네스코가 특정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게 된 것은 훼손되거나 망실되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류 전체에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부동산 유형유산을 국제적으로 서로 협력하며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가 국제적 협의를 거쳐 채택한 것이 “세계유산협약”이다. 따라서 세계유산은 한 지역이나 국가에서만 보존되고 전승되는 차원을 넘어 인류 전체를 위해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보호하여 현재를 거쳐 미래세대에게 전승해야 할 성격을 지닌 유산을 말한다.

세계유산협약이 중요하게 거론하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탁월’함이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이 뛰어난 것임을, 가장 대표성을 지닌 것임을 의미하고, ‘보편적’이란 유산의 탁월함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임을 뜻한다. 이를 달리 이야기하면, 어떤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세계유산 가치’를 지녔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목록 등재 의미와 과제에 대해 논의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기 위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유네스코는 세계유산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World Heritage Convention, 이하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으로 약칭)을 제정하여 1978년부터 해마다 신청한 유산을 심사하여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입증되면 그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려면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 규정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족해야 한다.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족시키는 구비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아래에 나열한 제반 사항을 충족시키면 그 문화유산은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 규정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하였다고 본다.

- 등재 기준(criteria) 여섯 항목 중 어느 하나, 또는 여럿에 속하는 것
- 진정성(authenticity)을 구비한 것
- 완전성(integrity)을 충족한 것
- 국내·외 유사유산에 대한 비교 분석(comparative analysis)에 의해 차별성이 입증된 것
- 보호 및 관리 계획이 수립된 것

#### **‘한국의 서원’은 등재기준의 어느 항목을 구비하였는가**

‘한국의 서원’은 운영지침의 등재기준 (iii)을 구비하였기 때문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하였음이 입증된다고 세계유산위원회는 판단하였다. 등재기준 (iii)은 “살아있거나 또는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 혹은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의 서원’이 등재기준 (iii)을 구비한다고 판단하면서 입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인 서원은 교육적, 사회적 관행의 형태로 한국에서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 전통에 대한 특별한 증거가 되며,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계승되고 있다. 서원은 중국에서 전래된 성리학이 한국의 현지 조건에 맞도록 조정된 역사적 과정을 잘 보여주며, 이는 서원이 기능, 계획 및 건축 측면에서 변형되고 지역화된 과정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특별한 증거가 된다.

The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are exceptional testimony to cultural traditions associated with Neo-Confucianism in Korea, in the form of educational and social practices, many of which continue. The seowon illustrate an historical process in which Neo-Confucianism from China was tailored to Korean local conditions resulting in academies which are exceptional testimony of this transformative and localising process in terms of function, planning and architecture.

세계유산위원회가 판단한 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주제별로 정리될 수 있다.

-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 전통에 대한 특별한 증거가 된다.
-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인 서원으로서 교육적, 사회적 관행의 형태를 잘 보여준다.
-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서원이 지닌 속성의 많은 부분을 잘 보유하고 있다.
- ‘한국의 서원’은 중국의 성리학이 한국의 지역성에 맞도록 조정되어 한국화된 역사적 과정을 잘 보여준다.
- ‘한국의 서원’은 중국의 서원과 차별되는 서원의 기능, 서원이 들어설 터 잡기, 건물 배치와 관련되는 계획, 건물 설계에서 변형되고 지역화된 과정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특별한 증거가 된다.

‘한국의 서원’은 어느 한 장소에 소재하는 단일 서원이 아니라, ‘9개 서원’을 ‘하나의 유산’으로 묶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장소에 소재하지 않고 여러 지역에 있는 유산을 하나의 유산으로 간주하여 등재한 세계유산을 ‘연속유산(serial property)’이라고 운영지침은 규정한다. 운영지침에는 서로 다른 지역에 소재하지만 성격이 유사한 여러 유산들을 ‘하나의 유산’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정의하고, 그 유산의 원래 가치가 총체적으로 온전하게 더 잘 부각될 수 있으면 ‘연속유산’으로 규정하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의 서원’이 연속유산으로 등재된 이유는 9개 서원을 묶으면 조선시대 한국 서원의 속성이 온전하게 더 잘 설명되는 유산이 되기 때문이다.

### **‘한국의 서원’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평가 기준인 진정성을 어떻게 구비하고 있는가**

문화유산의 진정성이란 해당 유산이 진품이거나 출처가 분명한 것을 말한다. 진정성은 또한 어떤 사상(事象, 일)이 사실과 다름없다고 확인하고 품질을 판정하는 개념의 기본이 되기도 한다. 문화유산의 현재적 존립 근거는 이 진정성의 이해와 확보에 있다. 문화유산은 또한 오랜 기간 세월을 거치면서 특정 문화와 지역에 한정되어 그 가치를 지니는 특수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유산을 그 유산답게 만든 것이 곧 그 유산의 진정성이다. 다시 말하면, 문화유산의 진정성이란 해당 유산의 유형과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그 유산의 속성이 학술적, 문화적, 예술적, 역사적, 사회적, 경관적 차원에서 본래부터 또는 역사의 과정에서 지니게 된 진실성과 신뢰성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은 지속가능한 보존의 판단 기준이자, 출발점이 된다.



‘한국의 서원’은 건립 이후 주변 산수 경관, 건축물 배치, 건축 형식과 공간 측면에서 진정성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존속된 서원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다. 9개 서원이 확보하고 있는 진정성은 역사 기록 및 다양한 사료에 의해 그 진정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서원’은 조선 후기를 거쳐 1871년 흥선대원군에 의해 전국의 모든 서원과 사우(祠宇) 중에서 47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훼손될 때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이 9개 서원은 모두 잘 보존되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의해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어, 서원 원래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한국의 서원’은 또한 성리학에서 중시하는 예(禮)가 실천되고 의례화 된 곳으로서, 그 지역 유림의 주도하에 제향, 강학, 사회 교육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한국의 서원’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평가 기준인 완전성을 어떻게 충족하고 있는가**

완전성은 유산이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는 특성의 전체와 원래 모습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완전성은 또한 문화유산과 그 속성에 전체적으로 흠이 없거나 손상이 없으며, 위협요소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본 요건인 완전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등재 유산의 물리적 측면과 중요한 특징들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쇠락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서원’은 모두 조선시대 성리학의 정착과 발전에 공헌한 인물이면서 향촌과 연고가 있는 인물을 제향하고 이들의 사상을 본받는 교육을 행하는 장소로서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번잡한 시가지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선현의 유적이 있으며 산수가 좋은 곳이다. ‘한국의 서원’은 또한 조선시대 서원의 기능을 충족시킨 유식공간, 강학공간, 제향공간, 지원공간, 진입공간을 구성하는 건물, 시설, 공간을 제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서원 건립 당시부터 고려되었던 입지 조건을 현재까지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9개 서원은 유산의 특성을 대표하기에 충분한 범위의 공간을 법적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개발 압력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훼손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다.

### **‘한국의 서원’은 유사 유산에 대한 비교 분석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입증되었는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면서 세계유산위원회가 등재기준 (iii)을 구비한 유산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의 서원은 중국에서 발원한 성리학 교육기구가 한국의 지역성에 맞도록 조정된 결과물임을 드러내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한 유산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국의 서원’은 중국이나 일본의 서원과 비교하여 서원의 기능, 서원이 들어설 터 잡기, 건물 배치와 관련되는 계획, 건물 설계, 제례와 의식 등에서 차별성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인간 본성의 함양과 도덕적 실천을 위한 교육기구로 설립한 서원을 중심으로 성리학적 이상사회를 조선 사회에 정착하도록 노력하였다는 점과 그 속에서 뚜렷한 건물 배치 개념과 건축미학을 가진 한국 서원건축의 전형을 형성하였다는 점은 ‘한국의 서원’이 중국이나 일본의 서원과 차별되는 중요한 속성성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의 서원’의 향후 과제는 보호와 관리에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특정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할 때 그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서술문을 채택하는데, 이 서술문에 근거하여 향후 당해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 관리해야 한다. ‘한국의 서원’의 보호, 관리도 예외일 수 없다.

‘한국의 서원’에 대한 보호와 관리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로는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례 등이 있다.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9개 서원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유산 자체는 물론이고 각 서원 주변이 보호, 관리 되고 있다. 특히 서원 주변은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신축, 증개축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서원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원과 주변 환경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해당 서원의 보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서원을 정비, 보수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며 서원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한다. 각 서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호, 관리 외에도 시민들이 서원을 쉽게 접근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서원의 활용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서원’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각 서원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서원의 세계유산 지정구역(property zone)과 완충구역(buffer zone)을 설정하고 그 경계선을 표시했다. 문화재구역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이 소재하는 구역을 말하고, 완충구역은 해당 유산의 주변 구역을 말한다. 해당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완충구역에는 토지 및 건물의 이용과 개발에 대한 제재가 행해진다.

9개 서원에 대한 보존 및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발 압력, 환경적 압력, 자연 재해, 방문객 및 관광 산업의 압력, 토지 사용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개발 압력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과 개발 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각 서원이 개발을 이윤을 창출할만한 곳에 위치하지 않았다. 방문객과 관광 산업에 의한 서원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영향은 향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서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원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호와 관리 측면에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한 두 가지 사항을 지켜야 한다. 하나는 ‘한국의 서원’이 연속유산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한국의 서원’을 관리할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9개의 서원을 ‘하나의 유산’으로 관리할 ‘종합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첫번째에 해당하는 권고사항은 실현되었으나 두 번째 권고사항은 아직 수립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산을 제대로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유산의 정체성을 회복, 유지하여 다음 세대에게 유산의 속성을 온전하게 물려주자는 데 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한 두 가지 사항은 ‘한국의 서원’이 향후 지속가능한 세계유산이 되게 하는데 초석이 되는 역할을 할 것이다.



## **‘한국의 서원’을 잘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제시한**

### **‘전략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된 유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그리고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유산협약 체약국에 '전략 목표'를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흔히 삭제) 5Cs로 언급되는 전략 목표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세계유산목록에 대한 신뢰성(Credibility)을 제고하도록 한다.
- 2). 세계유산의 효과적인 보존(Conservation)을 보장하도록 한다.
- 3). 체약국의 효과적 역량 구축(Capacity-building)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한다.
- 4). 소통(Communication)을 통해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 참여 및 지지를 증진하도록 한다.
- 5).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에 공동체(Communities)의 역할을 증대하도록 한다.

세계유산의 보호와 관리와 연관되는 이러한 전략은 규제 일변도의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유산의 보존관리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전환케 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는 나아가 정보화, 국제화, 시민사회화 시대에도 부응하게 할 것이다.

### **글을 마무리하며**

이상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목록 등재 의미와 과제를 소략하게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등재의 관건이 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그 자체가 ‘한국의 서원’의 가치와 특성이 된다.

이 글에서 언급한 ‘한국의 서원’의 유산 가치를 세계유산 측면에서 정리하면,

- 1). ‘한국의 서원’은 동아시아의 성리학이 교류한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유산이다.
- 2).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의 철학과 정신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대표적인 유산이다.
- 3).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과 관련된 정신과 활동이 지금도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특출한 사례를 보여주는 유산이다.
- 4).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이 반영되어 형성된 건축과 경관이 앙상블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이다.
- 5).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에 기반을 둔 사상, 의례, 신앙, 문화 전통과 물리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 6).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서원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금도 잘 보존되어 서원의 완전성을 구비하고 있다.
- 7). ‘한국의 서원’은 공간구성, 건물배치, 경관, 디자인, 전망 등의 관점에서 진정성을 잘 구비하고 있다.
- 8). ‘한국의 서원’은 동아시아의 성리학의 정신과 활동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에 속하는 유산이다.
- 9). ‘한국의 서원’이 지닌 고도의 완전성과 진정성은 유산이 가진 탁월한 가치를 강화한다.

요약하면, 살아있는 문화 전통임을 보이는 ‘한국의 서원’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교육 시설과 공유하는 것이 많지만, 성리학이 지향하는 사상이 서원에 반영된 건물 배치, 공간 구성, 경관 조성 등을 통해 한국화된 서원 건축의 속성을 형성한 증거를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인 서원은 교육적, 사회적 관행의 형태로 한국에서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 전통에 대한 특별한 증거가 되며, 그중에서도 ‘한국의 서원’은 중국의 성리학이 한국의 현지 조건에 맞도록 조정된 역사적 과정을 잘 보여주며, 지역화된 과정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특별한 증거가 된다.

이러한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며 보호, 관리하기 위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듯이 9개의 서원을 ‘하나의 유산’으로 관리할 ‘종합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한국의 서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이를 미래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관계 당국은 세계유산위원회가 제시한 '전략 목표(5Cs)'를 설정해서 규제 일변도의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유산의 보존관리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전환케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 □ 참고문헌 □

UNESCO,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972. 11. 16

UNESCO,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WHC.

10 July 2019.

UNESCO World Heritage Center, World Heritage – Challenges for the Millenium, 2007.

문화재청,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2018. 1.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제분석, 2019. 12.

강경환·이해준·김덕현·이왕기·김영범,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2011.

강경환·조유진, 『왜, 세계유산일까?』, 놀와, 2016. 8.

이배용, 정만조, 이상해, 「한국의 서원」, 「한국의 서원유산 I」, 도서출판 문사철, 2013.

한국서원연합회, 「한국의 서원문화」, 도서출판 문사철, 2014.

한국서원연합회, 「한국의 서원유산 1」, 도서출판 문사철, 2014.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백서』, 2020.

Amareswar Galla ed. World Heritage, Benefits Beyond Bord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Bernard M. Feilden and Jukka Jokilehto, Management Guidelines for World Cultural Heritage Sites, ICCROM, 1998.

David Lowenthal, The Past is a Foreign Coun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ICOMOS ed., Jukka Jokilehto compiled, The World Heritage List, What is OUV? Defining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Cul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 Monuments and Sites XVI, 2008.

Melaune Hall ed., Towards World Heritage, International Origins of the Preservation Movement 1870-1930, Ashgate, 2011.



# 한국의 전통적 교육 공간, 서원의 인문적 가치

이 기 동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 <요 약>

조선시대는 선비교육을 통해 많은 선비를 배출했고, 그들의 선비정신으로 조선 오백년을 유지했다.

서원교육은 조선이 멸망함과 동시에 사멸하고 말았다. 서원교육이 사멸하게 된 원인은 일차적으로는 조선이 멸망한 뒤 일제가 서원교육을 중단시켰기 때문이고, 이차적으로는 광복 이후 정치, 경제, 교육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제도를 서구 근세의 방식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한국이 서구식 제도를 도입한 것은 서구의 문화를 앞선 문화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서구의 문화를 도입했지만 서구처럼 되지 못하고, 한국 고유의 방식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게 되었다.

서구가 계속 앞서갈 수밖에 없다면 한국인은 참으로 불행하다. 그러나 서구인의 삶의 방식과 문화가 한계를 맞이할 때가 온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오늘날은 서구의 문화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로 인해 고독해졌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과 개인이 살아남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인다. 사람들이 경쟁을 벌이면 처음에는 발달하지만, 나중에는 지나친 경쟁을 하느라 남을 괴롭히고 자기도 괴로워진다.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지구환경까지 파괴한다. 지구는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토인비는 인류가 지구를 떠나야 할 때가 되면 지구의 것은 다 버리고 가되, 오직 하나 한국의 효도사상은 가지고 가자고 했다. 한국인의 효도사상은 한국인의 한마음사상에서 비롯한다. 토인비가 한 말은 한국인의 한마음사상이 지구를 구할 수 있는 특효약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렇지만 한국인에게서도 한마음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부활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인의 한마음을 부활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안성맞춤인 곳이 한국의 서원이라고 생각한다. 서원이 오늘날의 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아, 한마음을 회복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한국의 서원이 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The Value of Seowon, a Traditional Korean Institution of Learning

Lee, Kidong

(Honorary professor of Sungkyunkwan University)

The term seonbi refers to Confucian scholars in the Joseon period. Many scholars were produced during Joseon at private Confucian academies, or seowon (書院), and their seonbi spirit helped the dynasty last over 500 years.

The seowon system collapsed along with the dynasty. A major reason for the demise of seowon education was because the government shut down the seow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addition, the nation's political, economic and educational systems were all modernized and modeled after Western ways.

Korea adopted the Western system because Western culture was deemed to be more advanced. Korea accepted Western culture, but failed to become like the West, and Koreans became confused because they forgot their own ways.

Koreans will be truly unhappy if the West stays ahead of them, but things might change if the West faces its limitations. Western culture is now facing a crisis. Individualism has caused people to become isolated. Each person has to compete endlessly with others to survive. Competition allows people to achieve some development initially, but excessive competition will spawn bullying and suffering. People even destroy the natural environment to win out, and the earth is now in a great danger.

Toynbee said that when it was time for humans to leave the Earth, they should leave everything behind except the Korean spirit of filial piety (孝 hyo). Korean filial piety stems from the idea of unity. What Toynbee said suggests that Koreans' hanmaum (one mind, unity) spirit can serve as a special medicine to save the Earth.

Therefore, restoring the hanmaum spirit is urgently needed, and the seowon in Korea will be the perfect educational institution for bringing the Korean spirit back. Korea's seowon will be able to revitalize the hanmaum spirit.



## 1 서원의 역할

조선시대는 한국의 정치이념이 유학이었고, 유학을 통해 문화를 꽃피웠다. 세종대왕은 유학을 바탕으로 정치를 했고, 한글을 만들었다. 퇴계 선생은 유학을 바탕으로 수양철학을 완성했고, 한국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조선시대가 500년을 넘게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선비정신 덕분이었다. 조선의 선비정신은 향교와 서원을 통한 유학교육을 통해 배양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서원교육을 통해 배양된 바가 크다.

## 2, 서원교육이 사멸한 원인

서원교육은 조선이 멸망함과 동시에 사멸하고 말았다. 서원교육이 사멸하게 된 원인은 일차적으로는 조선이 멸망한 뒤 일제가 서원교육을 중단시켰기 때문이고, 이차적으로는 광복 이후 정치, 경제, 교육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제도를 서구 근세의 방식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오랫동안 한국인의 마음을 가지고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정치를 해왔고 교육을 해왔다. 한국인의 마음과 문화는 근세의 서구인들과 정반대라고 해도 될 만큼 독특하다. 한국인과 서구인들의 차이를 대밭에 자라고 있는 대를 판단하는 방식의 차이로 비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대밭에 있는 대들은 지상에서는 여러 그룹이 각각 다르게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하에서는 하나의 뿌리로 이어져 있다. 근세의 서구인들은 지상의 대만 인정하여 대들을 각각 독립적인 개체로 보지만, 한국인들은 지하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는 하나의 뿌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지상의 대들을 독립적인 개체로 보지 않는다.

대의 지상의 부분이 사람의 몸이고, 지하의 뿌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지하의 뿌리 중에 지상의 대와 연결되어 있는 뿌리가 마음이고, 땅 밑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는 뿌리가 한마음이다. 한국인들은 마음의 본질은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마음이라는 말을 쓴다. 한국인들은 한마음을 중시하고, 한마음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여, 사람들을 남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서구의 개인주의가 한국에서는 소화되지 않는다.

한국인의 정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핵심은 너와 나가 하나라는 ‘너 = 나’의 등식이다. ‘너 = 나’이기 때문에 ‘너’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져서 ‘우리’로 바뀐다.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것이 서툴다.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은 뒤에 한 사람이 밥값을 다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처럼 한국인에게 독특한 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제도를 받아들였다. 그 까닭은 서구가 지구상의 대부분을 지배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모든 분야에서 서구인의 방식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서구의 방식을 빨리 도입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소와 개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어느 날 개에게 물려 고생하던 소가 개를 조사해보고 개는 풀을 먹지 않고 개밥을 먹는다는 사실을 안 뒤, 자기도 풀 먹기를 중단하고 개밥을 먹기 시작한 것과도 같다.

소가 고기가 들어있는 개밥을 먹으면 영양가 높은 개밥 덕분에 잘 자라지만, 나중에는 광우병에 걸려 아주 망가지고 만다. 서구화를 열심히 추진하던 한국이 정치, 교육, 경제를 위시한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방식은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통째로 버리고 서구의 개밥정치로 바꾸었다. 교육도 그러하고 경제도 그러하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버리고 서구의 방식을 추종했다. 그 결과 한국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신세가 되어 갈팡질팡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 들고 있다.

서구가 계속 앞서갈 수밖에 없다면 한국인은 참으로 불행하다. 한국인은 계속 개밥을 먹지 않을 수 없는 소처럼 되어 점점 더 혼미한 상태로 빠져 들 것이다.

그러나 서구인의 삶의 방식과 문화가 한계를 맞이할 때가 온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서구 근세는 기독교를 부정하면서 시작되었으므로, 하느님을 부정한다. 하느님을 부정하면 하늘마음이 부정되고 한마음도 부정된다. 한마음을 부정하면 사람들은 남남의 관계가 되므로 인간관계는 본질적으로 경쟁하고 투쟁하는 관계로 바뀐다. 사람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할 때는 죽기 살기로 노력하기 때문에 물질문화가 급속하게 발전하지만, 어느 정도 발전한 뒤에는 많은 문제가 생긴다.

### 3. 서구의 사상과 문화의 한계

중세기 말에 서구인들은 교회로부터 독립하여 인간의 해방을 선언했다. 기독교로부터 등을 돌리면 하느님을 부정하기에 이른다. 하느님을 부정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전에는 삶의 방식이 간단하고 단순했다.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나 딸이다. 다른 사람들도 하느님의 아들이나 딸이다. 우리들은 형제자매이다. 형제자매인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나는 누구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렸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다면 남들은 누구인가? 역시 알 수 없다. 우리들은 어떤 관계인가? 남남이다. 남남끼리 사랑하면 이상하다.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바보다. 서로 많이 차지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고 싸워야 한다. 남은 경쟁의 대상이고 투쟁의 대상이다. 그래서 남이란 불안한 존재이고 위험한 존재이다. 나에게 어떤 일을 가해 올지 예측 불가능한 존재다. 사람은 불안한 사람들 틈에서 많이 차지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는 존재이다. 불안해하지 않고 많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모두 죽이고 독차지 하든가, 손아귀에 넣어놓고 빼앗아 가는 것이다. 첫 번째 방식이 영국인들이 북미나 호주에 가서 한 방식이고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이 남미에 가서 한 방식이며, 두 번째 방식이 서구인이 아시아에 와서 한 방식이고 일본인이 한국에 와서 한 방식이다.



노자는 빼앗기 위해 싸울 때 가장 많이 발전한다고 했다. 전쟁을 할 때는 무기개발을 위해 목숨을 건다. 그럴 때 과학이 가장 많이 발전한다. 서구인들은 발달한 과학과 무기의 힘을 이용해 전 세계를 지배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구를 따라가기 바쁘다. 빨리 서구를 따라가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기고 있다. 서구를 가장 빨리 따라간 나라는 일본이었다. 일본은 서구의 사상으로 무장하여 많은 아시아 나라들을 침략했고 점령했다. 서구인들은 겉으로는 교양을 갖춘 신사로 위장하지만, 바탕에는 폭력성이 도사리고 있다. 서구인들이 아무리 교양으로 평화를 위장해도 본질적인 폭력성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오늘날 인간성 파괴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근본원인은 바로 이 때문이다. 폭력은 파괴한다. 자기를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세계를 파괴하고 지구를 파괴한다.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인간성 파괴에서 오는 여러 현상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 1) 불안에서 오는 폭력성과 우울증

인간성의 오해에서 오는 여러 현상 중에서 으뜸인 것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남들에게 제압당할까봐 불안하고, 제압을 당하면 우울해진다. 현대인은 불안과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성적 절제력을 기른 교양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바닥에는 폭력성과 우울증의 요인이 잠재해 있다.

## 2) 고독한 인간과 왜소한 인간

오늘날 사람들에게 고독은 필연적이다. 남남이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혼자 고립된 상태로 세상을 사는 것이다. 부모형제와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친구와도 하나가 되지 못하며, 애인과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도 가족을 찾고 친구를 만들고 애인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라도 어울려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덜 외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다른 사람과 어울린다 해도 하나가 될 수는 없으므로, 현대인에게 고독은 절대적이고 필연적이다. 어떤 시인이 ‘임 앞에 있어도 임이 그림다.’고 한 적이 있다. 임 앞에 있어도 고독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임 앞에 있어도 외롭다. 절대고독을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임을 고대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사람들은 왜소하다. 물질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자기라고 생각한다. 자기의 몸은 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십분의 일이 되고 백 사람과 함께 있으면 백 분의 일이 된다. 지구상의 칠십억 사람들 중에서는 칠십억 분의 일이 된다. 칠십억 분의 일은 거의 제로이다. 나의 가치는 제로이고 너의 가치도 제로이다. 사람들의 가치가 제로라면 사람 죽이는 일은 제로를 하나 제거하는 것이므로 어렵지 않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왜소하게 여기므로, 부평초처럼 가볍다. 가벼울수록 잘 흔들린다. 남의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이 부평초처럼 흔들리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중독이 되어 빠져 있거나, 펜클럽 등의 모임을 만들어 그 속에서 안주하기도 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쓸쓸히 늙어가다가 절망적으로 죽는다. 오늘날 사람들은 거의가 영생을 안 믿기 때문에, 죽음에 다가갈수록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죽음이 두려워 치매에 걸리는 사람도 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라고 판단하고 자기의 죽음을 위로하며 체념하는 경우도 있다.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을 정해놓고 차례차례 가보기도 하고, 죽기 전에 먹어봐야 할 것들을 정해놓고 그것을 먹으러 다니기도 한다. 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사람도 있다. 사후에 이름이라도 남기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도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이것이 사람들이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 3) 중독된 인간의 불행한 종말

사람들은 욕심의 노예가 되었다. 욕심의 노예가 된 사람은 오직 욕심 채우는 방향으로만 달려간다. 욕심을 채우면 행복해하고, 못 채우면 불행해한다. 그러나 욕심은 채우는 순간 커져버린다. 일억 모우는 것이 목표였던 사람이 일억을 모아 행복을 만끽하려는 순간, 욕심이 훌쩍 커져서 ‘뭐 해 십억 채워.’ 하고 보챈다. 십억을 채우는 순간에는 또 ‘뭐 해 백억 채워.’ 하고 보챈다. 그러면 사람은 다시 백억을 채우기 위해 달린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힘이 부쳐 쓰러진다. 욕심에 중독되어 사는 사람은 욕심을 채워도 불행하고 못 채워도 불행하므로 종착역은 불행뿐이다.

욕심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다. 없었던 것이 들어와 본심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 마치 뱀새가 알을 낳은 동지에 뺨꾸기가 알을 낳으면 뺨꾸기 알이 먼저 부화해 뱀새의 알을 다 없애버리고 혼자 있으면서 먹이를 달라고 보채는 것과 같다. 새끼뺨꾸기가 보채면 어미뱀새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먹여 기른다. 어미뺨꾸기는 설 틈이 없다. 어미뱀새가 자기 새끼를 다 없애버린 새끼뺨꾸기를 정성을 다해 길러놓으면 다 자란 새끼뺨꾸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날아간다. 뱀새는 불쌍하지만, 자기가 불쌍한 줄도 모른다. 사람이 그렇다. 욕심이라는 새끼뺨꾸기를 기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사람은 불쌍한 뱀새의 신세이지만, 그것을 모르고 있다. 불쌍한 중생이고 구원받지 못한 외로운 영혼이다.

### 4) 인간성 파괴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질수록 남들과의 관계가 자꾸 악화된다. 그럴수록 남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자기도 남으로부터 상처를 받는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남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술을 마신다. 그러다가 남들에게서 멀어져 사이버에 갇히거나 도박 등에 중독되기도 한다. 차츰 사람을 멀리하고 개 등의 반려동물과 함께 놀기도 한다. 그러면서 자꾸 인간성이 파괴되어 간다.



## 5) 지구의 파괴

인간성 파괴는 자연의 파괴로 이어진다. 부모를 버리는 사람에게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고 한들 귀에 들어갈 리 없다. 사람들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한다. 그것이 법에 걸리는 일이면 법망을 피할 방법을 연구한다. 욕심을 채우는 것 중에는 남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못할 것이 없다. 지금은 자연환경이 급속히 파괴되고 있다. 나무를 남벌하여 산소가 부족하기에 이르렀다. 공기가 오염되어 숨쉬기 어려운 곳도 많다. 공기를 오염시키는 근본 원인은 그것이 욕심을 채우는 빠른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일전에 스티븐호킹은 30년 안에 인류가 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 스티븐호킹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제 지구는 심각할 정도로 파괴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가 파괴되어 인류가 전멸할 지도 모른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가 지구를 떠나야 할 때가 되면 지구의 것은 다 버리고 가되, 오직 하나 한국의 효도사상은 가지고 가자고 했다.

한국의 효도사상은 한국인의 독특한 인간관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인의 인간관은 근세 서구인들의 인간관과 반대이다.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정서 속에는 ‘나 = 너’라는 등식이 깔려 있다. 나와 너는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다. 한국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고백을 할 때 ‘아이 러브 유(I love you)’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사랑합니다.’ 또는 ‘사랑해.’라고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와 너는 남남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아이 러브 유’는 남남끼리 만나 사랑게임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사랑은 사랑게임이 아니다. 너와 내가 만나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면 희생을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희생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남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희생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희생하는 것이다. 나에게 희생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행복이다.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사랑의 내용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희생하는 것으로 주종을 이룬다. 외로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희생하는 사랑을 보면, “나도 저런 사랑을 한 번 받아봤으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한류 붐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다.

토인비가 한국의 효도사상을 귀하게 여긴 것은 한국인의 효도에서 희생정신을 봤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희생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희생한다. 형제간에 서로 희생하고 애인끼리 서로 희생한다. 이 한국인의 희생정신은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에는 경쟁력이 없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인류가 멸절하고, 지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지도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서는 인류를 구하고 지구를 구하는 명약이 될 수 있다.

#### 4. 희망의 빛은 동방에서

지구적 위기에 처한 현재의 상황에서 지구를 구하는 희망을, 지구를 위기에 빠트린 서구인들에게서 찾을 수는 없다. 서구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면 희망은 동방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극동에 있는 세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이다. 이 세 나라 중에서 서구문화를 뒤흔들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서구인들이 매료되는 것은 한마음사상이고, 한마음사상은 한국밖에 없는 한국의 고유사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일찍이 타고르가 깨우쳤듯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은 한국에서 타오를 것이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절에  
찬란히 빛나던 등불의 하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 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한국에서 타오르는 등불이 동방의 밝은 빛이 된다는 것이다. 동방의 지혜가 인류를 구하고 지구를 구한다고 한다면, 동방의 밝은 빛은 한국에서 타오르는 빛일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에서 타오르는 불빛은 문화예술부분에서 시작되고 있지만, 문화예술은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이므로, 한국의 문화예술에서 타오르는 불빛은 한국인의 마음에서 타오르는 불빛이다.

한국인의 한마음을 표현하는 한국의 정신이 선비정신이다. 한국의 선비정신은 유학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한국의 선비정신이 유학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면, 선비정신은 중국에도 있어야 하고, 일본에도 있어야 하며, 중국의 문화예술이나 일본의 문화예술에서도 한류와 같은 붐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한국인의 선비정신은 한국의 고유사상에서 기인하는 정신이다. 한국의 유학은 중국의 유학과도 다르고 일본의 유학과도 다르다. 한국의 유학은 중국의 유학과 한국 고유사상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독특한 유학이다. 중국 유학의 발원지가 한국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유학은 한국 고유사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5. 한국사상과 한국유학의 특징

한국의 유학은 송나라 때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에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한국의 고유사상이 결합하여 하나의 체계로 융합한 독특한 사상이다. 한국 고유사상의 특징은 하나사상과 하늘사상으로 압축된다.

한국의 성리학은 하나사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천인무간> <천인일체> <만물일체> 등이 전제되고, 하늘사상을 바탕으로 종교성이 강한 이(理)중심의 철학이 도출된다.

있이 자기가 있인 줄만 알고 있으면, 왜소하고 힘이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뿌리와 하나로 연결된 존재임을 알게 되면 거대하고 강력한 존재로 바뀐다. 사람이 자기의 몸이 자기의 전부인 줄 알면, 왜소하고 힘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지만, 하늘과 하나로 연결된 존재임을 알면,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로 바뀐다. 한국 선비의 힘은 하늘에서 나오는 힘이다. 앞을 바라보는 사람이 앞으로만 보면 왜소하고 나약해 보이는 것처럼, 선비를 바라보는 사람이 몸을 기준으로만 보면 선비는 외형적으로 왜소하고 나약한 존재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선비의 내면을 알면 달라진다. 선비의 힘은 몸에서 나오는 외형적인 힘이 아니라 하늘마음에서 나오는 위대한 힘이다. 선비의 움직임은 하늘의 움직임이다. 한국 가수들의 몸놀림이 신들린 상태의 몸놀림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선비의 유전자를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모든 창의력은 하늘에서 나온다. 하늘은 전지전능하므로, 하늘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전지전능한 힘을 발휘한다. 한국인들이 엄청난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기상천외한 발명을 한다. 한글 같은 위대한 글자를 일시에 만든 사람은 한국인 이외에는 없다. 거북선을 만들어 수많은 적선을 물리친 것도 한국인 이외에는 없다.

한국인이 하나가 될 때는 위대한 힘을 발휘하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자멸하고 만다. 지금 시급한 것은 한국인들에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은 한마음을 회복할 때 가능하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유학교육을 통해 한국인들에게 한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지금의 서원은 서원에 배향된 현인의 후손들이 모여 제사지내는 공간으로만 변모해버렸다. 서원이 폐쇄되어 서원교육이 실종한 지금 한국인들은 한마음을 회복할 기회가 많지 않다. 일부 기독교나 불교에서 부분적으로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종교적 배타성으로 인해 한마음의 온전한 회복을 유도하기 어렵다. 한국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가,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 자멸하는가는 한마음을 회복하는가, 못하는가의 여부에 달렸다.

오늘날 한국에서 한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되살리고자 한다면 서원교육의 부활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 6. 서원교육의 부활

한국의 서원이 과거 위대한 힘을 발휘했던 이유는 서원이 한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서원이 당파싸움에 휘말려 일부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서원 본래의 기능은 한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을 한 것에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서원의 교육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한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서원에서는 유학을 교육했지만, 그때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되살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

앞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할 교육내용은 한국고유의 사상과 지구상에 내려오는 세계의 정신문화를 융합하여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창조하는 것이다. 오늘날 지구상에서는 각종 종교에서 오는 분열과 폐해가 심각하다. 중동지방에서 벌어지는 끝없는 전쟁은 종교적 갈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모든 종교와 철학을 다 포용하여 하나의 체계로

재정리하는 것이다. 최치원 선생이 말한 것처럼, 한국의 고유사상인 현묘한 도는 유불도 삼교를 포용하여 하나의 사상으로 융합할 수 있다. 최치원 선생시대에는 유불도 삼교가 전부였으므로, 오늘날의 상황에 대입해서 말한다면, 한국의 고유사상은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철학을 포용하여 하나의 체계로 원융회통할 수 있다.

한국고유의 하나사상은 한국불교에도 녹아있고, 한국의 유학에도 녹아 있다. 물론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에도 녹아 있다. 오늘날 한국인은 한국교육의 하나사상을 이어받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두 종류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사상을 이어받고 있는 사람은 열려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닫혀 있는 사람이다. 열려있는 한국인은 불교신자이면서도 기독교와 소통하고, 기독교신자이면서도 불교와 소통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교신자는 불교 안에 갇혀서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기독교 신자는 기독교 안에 갇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좌파이론이나 우파이론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한국에 갇힌 사람이 득세하면 한국의 미래는 암담하지만, 열린 사람이 득세하여 한국인의 한마음을 회복한다면 한국인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살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안성맞춤인 공간이 한국의 서원일 수 있을 것이다. 서원에서의 교육은 종교에 국한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다.

서원에서 해야 할 두 가지 과제는 교육내용을 개발하는 것과 새로운 교육기관으로서의 제도를 갖추는 것이다.

서원의 본래기능은 교육이었다. 교육을 하지 않는 서원은 서원이라 할 수 없다. 서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부활은 오늘의 실정에서 보면 대학원대학으로 인가받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학원대학으로 인가를 받는 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노력하면 새로운 교육내용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7. 새로운 서원교육의 부활

저는 개인적으로 단군할아버지 때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교육내용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한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단군조선시대 때의 교육은 동굴에 들어가 21일간 합숙하면서 이루어졌다. 『삼국유사』에서는 곰이 동굴에서 21일간 쭉과 마늘을 먹으며 햇빛을 보지 않고 수련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삼국유사』에서 곰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진짜 곰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한국인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짐승이라 불렀다. 짐승이란 동물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폄하해서 하는 말이다. 사람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은 한마음이다. 한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지만, 한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짐승이다. 단군할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오늘날 사람들은 거의 다 짐승이다. 사람이 짐승으로 살면 안 된다. 사람이 짐승으로 살면 한이 맺힌다. 한국인에게 한이 많은 것은 한국인에게 한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정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시급한 것은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참된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참된 사람으로 거듭 나는 것이 예수가 말한 부활이다. 21일간의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어서 대중들에게 널리 펼치는 것이 한국의 서원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 타문화권에서 바라본 세계유산 한국 서원의 가치

예카테리나 샤프레이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이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되는 역사적 유산인 한국 서원(조선 시대의 성리학 교육 학교)의 한국에서의 역사적인 역할과 현대적 역할, 그리고 해외에서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한국의 남부와 중부 지역에 있는 아홉 장소에 존재하는 이 서원들은 자연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최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이 보고서는 서원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분석한다: 1) “문화적 여행”과 현재의 관광지 가능성; 2) 한옥 건물의 건축적, 환경적 특성과 유산 소재지 건물의 구성; 3) 등재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국 건축만의 특성과 성격. 그리고 보고서는 최근 서원의 건축적 환경에 대한 발표, 연구와 서원의 특수한 성질의 기반을 닦고 만들어내는 철학적 원칙을 언급한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인터넷과 기타 미디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영어와 다른 언어로 작성된 출판물에 대해서도 요약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제 관광객을 포함한 해외 대중에게 있어 한국 서원 문화유산이 인식될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을 확인하려고 한다.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확인하고 대표하기 위한 서원의 학술적 역할에 대한 학술대회의 논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해외에서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한 관점과 인식에 대한 토론에 기여할 예정이다.

## 목 차

1. 한국 서원:역사 유산으로서 한국과 해외에서의 현대적, 역사적 역할
2. 다음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서원:
  - 문화 여행과 현재 관광지 가능성
  - 한옥 건물의 건축적 특징과 건물 구성
  - 한국 건축의 특성과 성격
3. 영어와 다른 외국어로 된 서원에 대한 출판물 분석
4. 한국 서원 문화 유산이 해외 대중에게 인식되고 표현될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



## 1. 한국 서원 역사 유산으로서 한국과 해외에서의 현대적, 역사적 역할

서원, 한국 성리학 학교, 소개

“이 문화 유산은 대한민국 중부와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조선 시대 성리학 학교의 종류 중 하나였던 아홉 개의 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5-19세기) 그림 1.

교육, 선현에 대한 존경 그리고 자연과의 교류가 서원의 중요 기능이었고, 그들의 설계에서 드러난다. 산과 수원에 가깝게 위치해 있는 이 건물들은 정신과 육체의 수양, 자연에 대한 존중에 중점을 두었다. 누각풍의 건물들은 대지와 연결을 상징하도록 만들어졌다. 서원은 성리학이 중국에서 한국 환경에 적응하는 역사적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Source: <https://whc.unesco.org/en/list/1498/>]

서원은 2019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에 등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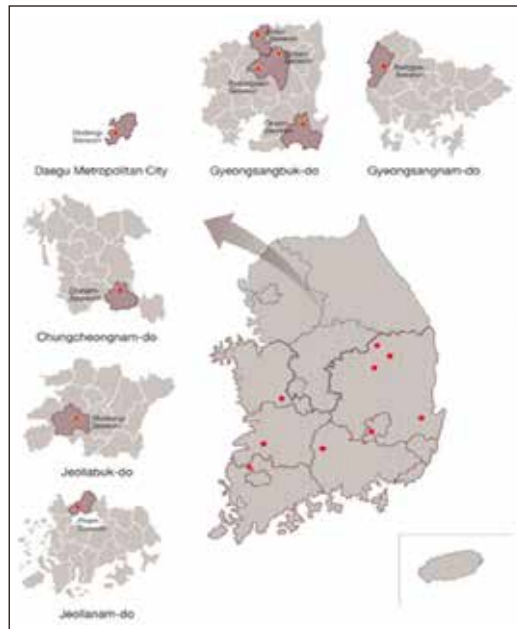


그림 1. 한국 9 서원 소재지. 이미지 출처: 유네스코 홈페이지

서원, 풍경과 소재지

서원(한국 성리학 학교)은 조선 시대에 건설된 아홉 개의 교육 기관이다. (그림 2) 모든 서원은 한국 사적과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2019년부터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에도 등록되었다. 공립 교육 시설이었던 향교(鄕校)와는 달리 서원은 향촌사회에 의해 건축된 사립 교육 시설이었다. 보통의 경우 강당과 서재가 앞에 건축되고 사당, 선현에게 주어진 건물은 뒤에 건축되어 전학후묘(前學後廟)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이미지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514230315386?f=p>

그림 2. 서원: 풍경과 소재지

### 서원, 소재지와 자연 환경의 관계(산과 물)

그림 3은 서원이 자연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연을 존중하고 육체와 정신의 수양을 위해 산과 물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 출처: 韓國의 書院建築 “韓國의 서원건축”  
그림 3.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서원의 소재지 (산과 물)

### 서원, 역사적 유산과 교육

서원(한국 성리학 교육기관)은 조선시대 중-후반,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교육 기관이었다. 이 시대에는 중국 사립 교육 기관이었던 슈안과 비슷한 특징을 보였다.

서원은 사립 기관이었고 사립 초등학교와 유교 사당의 기능을 합친 형태였다. 교육적인 특징에서 서원은 학생들이 과거를 준비하는데 집중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서원들은 양반 자제들을 교육했다. 현재 서원은 문화적, 역사적 유산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 2. 다음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서원: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에 등재된 서원이 더 많은 국제적 인식을 받게 되면서 이 보고서는 서원을 다음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한다:

- 문화 여행과 현재 관광지 가능성
- 한옥 건물의 건축적 특징과 건물 구성
- 특별한 한국 건축 특성과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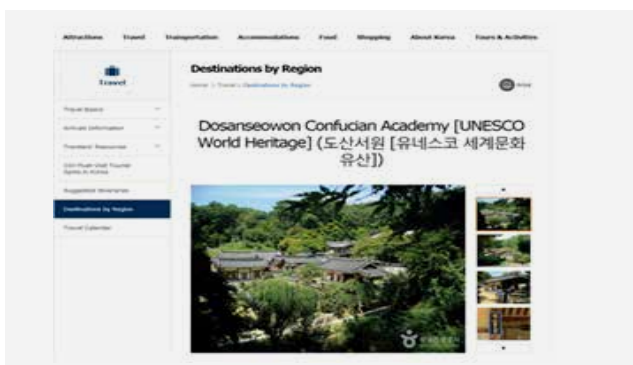
첫 번째 관점(문화 여행)은 서원을 국내 국제 관광에 관련된 여러 정보의 가용성을 통해 인식한다. 단독적인 문화 관광(문화 관광 길과 다른 여행 목적지)이 인기를 끌면서 (유튜브 여행 브이로그, 인스타, SNS 등)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정보의 출처에 중점을 둔다.

두번째 관점(서원의 건축적 특성)은 서원 건축 구성의 환경적, 건축적 특성에서 드러나는 양식을 소개하고 건물의 특징 자체도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원 시설의 건축 특징은 한국과 해외 서적에 잘 드러나 있다. (해외 대중을 위해 쓰여진 서적)

세번째 관점(특수 한국 건축 기능)은 (서원을 예로 들어) 한국 전통 건축에만 드러나는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

### ‘문화 여행’과 현재 관광지 가능성

한국 문화와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출처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다. (“Imagine Your Korea”) 이 홈페이지에서는 관광지에 대한 설명과 가능성에 대해 짧게 언급하고 있다. (그림 4)



출처: Imagine your Korea, 여행 정보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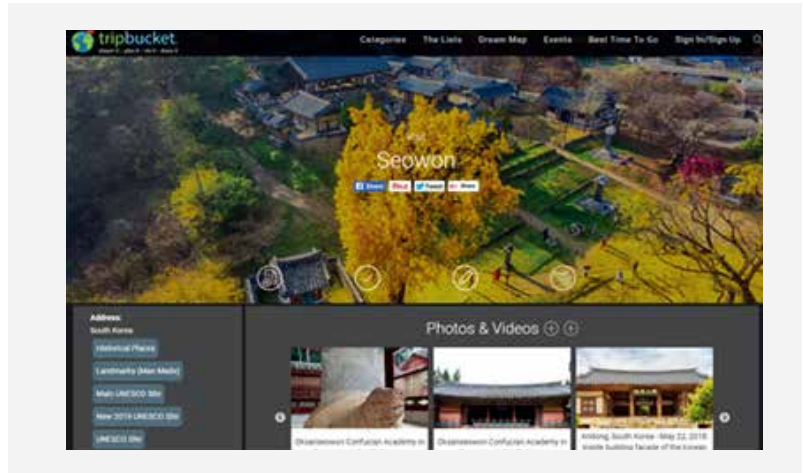
출처: KTX 잡지, 2020. 10

그림 4. 서원 “문화 여행”과 관광지

최근에는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아야 할 정보인 전통 건축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현대적인 대중매체 정보 출처가 늘어났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채널 등) 한국 웹사이트를 제외하고도 문화 관광과 관련된 해외 웹사이트들이 흥미로운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해시태그로 전하고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사이트 중 일부는 한국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에 집중하고 있다. (그림 5.)



출처: “참만남 참 문화유산” 페이스북 페이지



출처: 트립버킷 홈페이지: <https://tripbucket.com/dreams/dream/visit-seowon-south-korea-unesco-sites/>

그림 5. 내국인과 외국인을 위한 서원 문화 체험

## 한옥 건물의 건축적 특징과 건물 구성

서원 건물 배치는 사당, 강당, 동재와 서재 그리고 누각으로 구성되어 한국 건축에서 성리학적 개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예 중 하나는 도동서원의 풍경이다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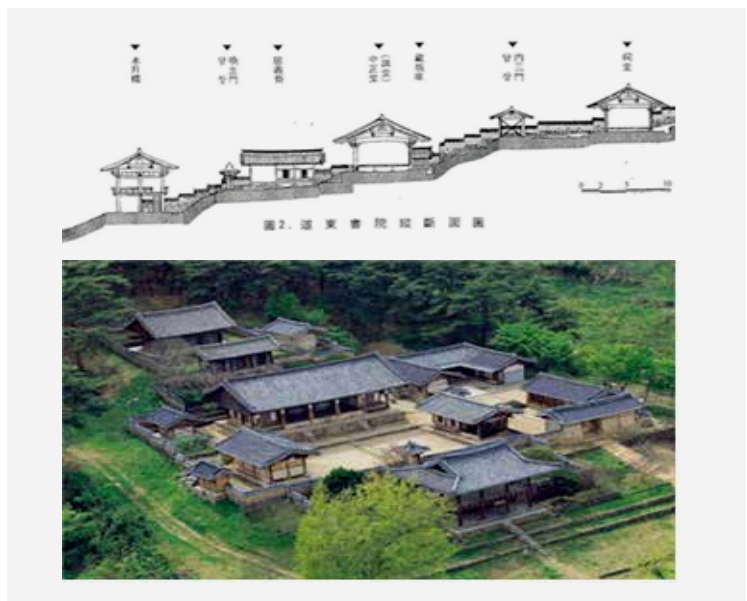


그림 6. 도동서원의 풍경 (배치도, 단면도, 조감도)

## 한국 건축의 특성과 성격

중요한 건축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주변 환경이 건물과 조화를 이룸 (산, 물과 관련되어 있음)
- 자연의 풍요로움을 중시하는 겸손한 표현
- 각 서원 중심 마당이 가진 중요한 역할
- 조선 시대에 도입된 신철학적 세계 관점(성리학)을 잘 반영한 서원의 건축 표현
- 전통 한옥에 사용된 천연 소재(여름에는 내부 냉방, 겨울에는 내부 난방, 온돌과 대청마루)
- 기와, 목재 기둥과 석재 건축; 한지로 만든 문과 창문은 미적 가치가 있음

### 3. 영어와 다른 외국어로 된 서원에 대한 출판물 분석

서원에 대한 최근 출판물(영문 출판물을 중심으로)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해외에 한국 전통 건축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알기 위함이다. 이 보고서는 대중의 관심을 받고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한 인식을 만들 수 있는 인터넷과 다른 매체에서 나타난 출판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중매체와 학술/교육 매체) (그림 7-9)



이상해(2005) 서원:  
조선시대 사회문화사의 심원한 흐름을 이어온  
강학과 제향의 건축공간 (한국 문화서 # 2)



서원에 대한 위키피디아 페이지(일반 정보)  
열람 가능 언어: 영어, 한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기타

그림 7. 인터넷에서 인기를 끄는 서원에 대한 일반 정보와 서적



## 매체와 유튜브에서의 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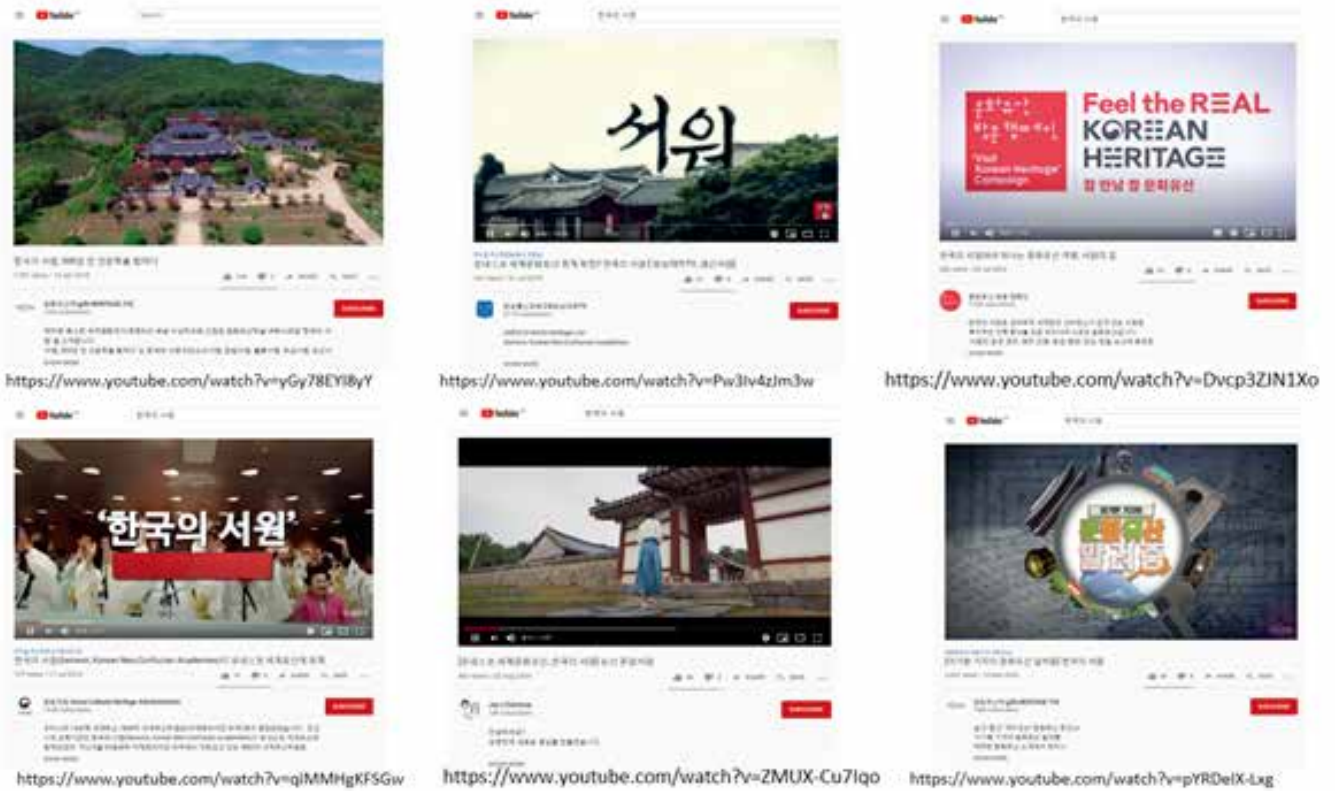


그림 8. 유튜브에서의 서원

## 다양한 매체에서의 서원과 국제적 인식

한국 드라마/영화	컴퓨터 게임
	
(신입사관 구해령) (MBC, 2019)	컴퓨터 게임: 문명 4
드라마는 소수서원에서 촬영되었음	게임에 서원이 나타남
소수서원, 영주/소수서원은 지역 군수 주세붕이 1541년에 세운 지역 교육 기관이었다고 왕이 이름을 내려준 첫 서원이었다. 서원은 조선 중기-후기에 가장 흔한 교육 기관이었다. 이 기관은 양반 계급의 아이들의 과거 준비를 위한 교육을 시행했다.	“16세기 교육 문제가 교육적 빈틈을 채울 사립 기관인 서원을 만들어냈다. 유교 교육과 의식에 중점을 둔 이 시설은 겸손한 외양을 드러냈다. 양반 계급 아이들의 서원 교육은 서원을 정치 논의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성리학과 주요 담론의 합은 한국 현대 문화와 정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연구하는 데 적합했다.”

그림 9. 다양한 매체에서의 서원

#### 4. 한국 서원 문화 유산이 해외 대중에게 인식되고 표현될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

이 보고서는 한국 서원 문화 유산이 국제 관광객을 포함해 세계 대중에게 인식되고 표현될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이유 영어로 된 서원에 대한 대중적/학술적 그리고 교육적 정보 출처를 분석한다.

한국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서원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학술대회의 논의에 다양한 관점으로 참여하고,  
해외에서의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 논의에 참여하고자 한다.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Seowon, Korean**
- **Neo-Confucian Academies**
- inscribed on the World
- Heritage List in 2019
-



# The values of the Korean Seowon World Heritage from other cultures perspectives

Ekaterina Shafray

(Assistant professor of Hannam University)

This presentation aims to view Korean Seowon (Neo-Confucian academies of the Joseon Dynasty) in terms of its contemporary and historical role in Korea and overseas as a historical heritage protected and recognized internationally. The Seowon includes nine sites located in central and southern parts of Korea, originally with deep connection to nature, and they are recently included into UNESCO's World Heritage List.

This presentation firstly considers Seowon from following perspectives: 1) 'cultural travel' and current tourism destination possibilities; 2) architectural and environmental features of hanok buildings and composition of buildings at the heritage complexes; and 3) special Korean architecture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that can be seen at the sites. Then this presentation briefly reviews some recent publications about Seowon's architectural environment, studies and philosophical principles that lay behind and shape up the distinctive qualities of Seowon; it specifically focuses on publications that recently appeared in Internet and other media that may have an interest for a large audience. It briefly summarizes available publications in English language and other foreign languages. This presentation tries to outline the ways and potential of Korean Seowon cultural heritage to be well-recognized and presented to a foreign audience, including international tourists. It seeks to engage in a conference's discussion of Seowon's academies role for a broad understanding and representing of Korean traditions and culture,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contribute to a discussion on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s perception and presentation to the outside world.

# CONTENTS

1. Korean Seowon: Contemporary and Historical Role in Korea and Overseas  
as a Historical Heritage
2. Korean Seowon from Following Perspectives:
  - 'Cultural Travel' and Current Tourism Destination Possibilities
  - Architectural Features of Hanok Buildings and Composition of Buildings
  - Special Korean Architecture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3. Review of Publications about Seowon in English and other Foreign Languages
4. Ways and Potential of Korean Seowon Cultural Heritage to be Well-recognized  
and Presented to a Foreign Audience

# 1. Korean Seowon: Contemporary and Historical Role in Korea and Overseas as a Historical Heritage

##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troduction

'The property is located in central and southern p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omprises nine seowon, representing a type of Neo-Confucian academy of the Joseon dynasty (15th -19th centuries CE), Fig.1.

Learning, veneration of scholars and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were the essential functions of the seowons, expressed in their design. Situated near mountains and water sources, they favoured the appreciation of nature and cultivation of mind and body. The pavilion-style buildings were intended to facilitate connections to the landscape. The seowons illustrate a historical process in which Neo-Confucianism from China was adapted to Korean conditions.' [Source: <https://whc.unesco.org/en/list/1498/>]

Seowon is included in UNESCO's World Heritage List in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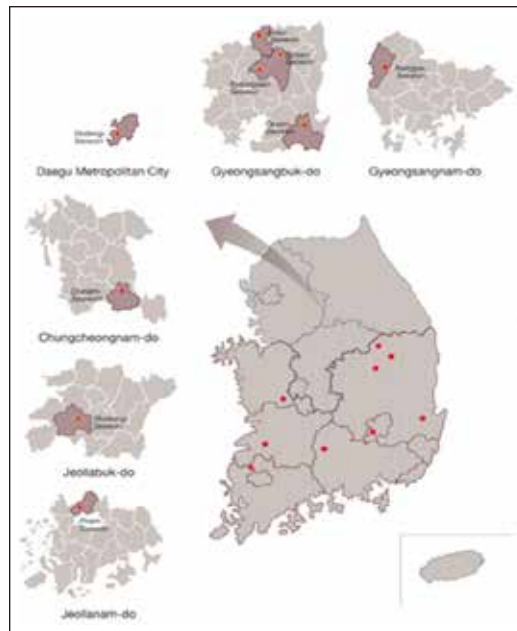


Figure 1. Korean Seowon 9 Site Locations. Image source: UNESCO website

## Seowon, Views and Locations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a group of nine educational institutions established at the Joseon Dynasty (Fig.2). All site were designated as Korean national cultural properties and historic sites. Since 2019 included in UNESCO World Heritage List. Unlike 'Hyanggyo' (향교/鄉校), which is a public school, Seowon is a private school established by Hyangchon (향촌사회) society. Usually, a lecture hall and a dormitory for education are placed in the front, while a shrine, a space dedicated to Seonhyeon, is placed in the rear, following the layout of the 'Jeonhak-fu-myo' (전학후묘/前學後廟).





Image source: <https://news.v.daum.net/v/20190514230315386?f=p>

Figure 2. Seowon: Views and Locations.

Seowon, Locations of the Sites, in Relation with Nature Landscape (Mountains and Water)

The Fig.3 shows that seowons are closely related with Nature, and located near mountains and water as part of appreciating nature and cultivating the mind and body.



Image source: 韓國의 書院建築 'The Architecture of Seowon in Korea'  
Figure 3. Seowon Location in Harmony with Nature (Mountains and Water)

Seowon, Historical Heritage and Educati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were the most common educational institutions of Korea during the mid- to late Joseon Dynasty. At that time they had similar features with private Chinese academies of classical learning shuyuan.

Seowon were private institutions, and combined the functions of a Confucian shrine and a preparatory school. In educational terms, the seowon were primarily occupied with preparing students for the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s. In most cases, seowon served only pupils of the aristocratic yangban class. Nowadays, seowons have a value as a cultural and historical heritage.

## 2. Korean Seowon from following perspectives:

As Seowon has receiving more international recognition since it was included in UNESCO World Heritage List, this presentation aims to consider it from following perspectives:

- 'Cultural Travel' and Current Tourism Destination Possibilities;
- Architectural Features of Seowon Hanok Buildings and Composition of Buildings;
- Special Korean Architecture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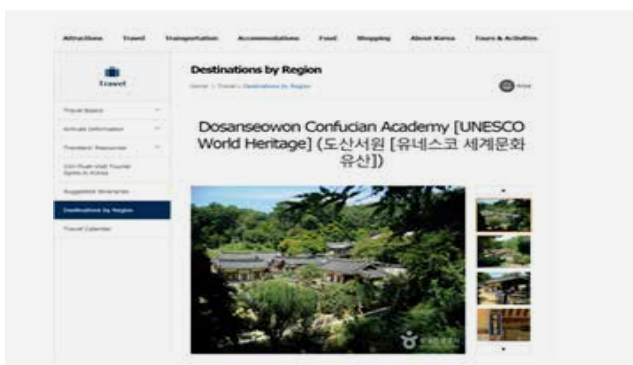
The first perspective ('Cultural Travel') views seowons in terms of availability of various information related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tourism. As long as individual cultural tourism (individual tourism trail and selection of travel destination) is gaining more popularity (with Youtube travel vlogs, Instagram and sns), it views various sources of information that can have an interest for a large audience.

The second perspective (Architectural Features of Seowon) aims to briefly introduce some of the patterns that can be observed in environmental and architectural seowon's complexes organization as well as features of the buildings themselves. Architectural features of seowon academies are well-presented in several Korean and foreign books (books designated for international audience).

The third perspective (Special Korean Architecture Features) aims to point out som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architecture that is specific to Korea (through the examples of seowons heritage).

### 'Cultural travel' and Current Tourism Destination Possibilities

One of the most common sources of information about Korean cultural and tourism destinations is the website of Korea Tourism Organization ('Imagine your Korea'). It gives a brief descriptions and explains about travel possibilities, etc. (Fig. 4)



Source: Imagine your Korea, travel information web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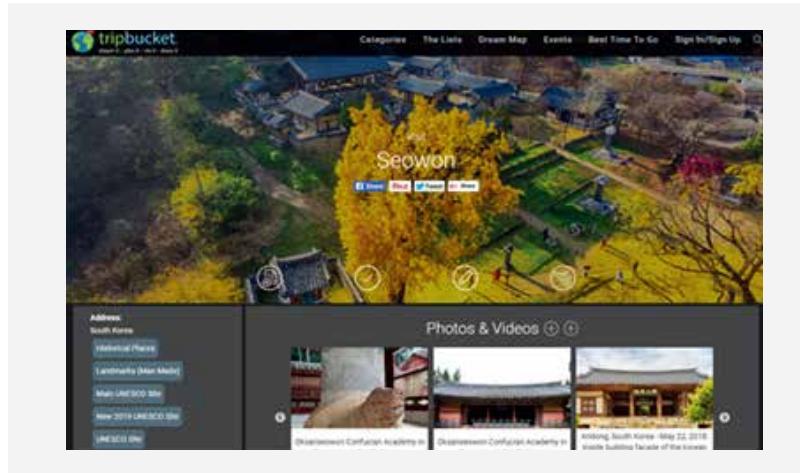
Source: ktx magazine, 2020.10

**Figure 4. Seowon 'Cultural Travel' and Tourism Destinations**

Recently there are more contemporary media sources of information (such as Facebook pages and Youtube channels) that present the view on traditional architecture as it is important and interesting thing to know and understand for a well-educated man. Besides Korean websites, there are several international websites related to culture tourism that give an idea about interesting travel destinations with hashtags and location and provide a brief descriptions about the sites. Some focuses more on foreigners who wish to have a cultural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of Korea (Fig. 5).



Source: 'Feel the Real Korean heritage' page on Facebook



Source: Tripbucket website, <https://tripbucket.com/dreams/dream/visit-seowon-south-korea-unesco-sites/>

**Figure 5. Seowon Cultural Experience for Locals and for Foreigners**

## Architectural Features of Hanok Buildings and Composition of Buildings

The complexes of seowon buildings comprise of shrine, lecture hall, dormitories, and pavilions and present a creative outline of Neo-Confucian concept in architecture in Korea. One the examples shows the view of Dodong-Seowon (Fig.6)



**Figure 6. The View of Dodong-Seowon (Plan, Section and Aerial View)**



## Special Korean Architecture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Some of the important architectural features can be presented as follows:

- Landscape flowing into the built complex (relation to mountains and water)
- The humility of expression brought the richness of nature
- Important role of the center courtyard of each Seowon
- Seowon's architectural expressions that best reified the new philosophical world-view (Neo Confucianism) during the times of Joseon Dynasty
- Use of natural materials for traditional hanok (cooling the interior in summer and heating the interior in winter, ondol and daecheong)
- Tiled roofs (giwa), wooden beams and stone-block construction; windows and doors made with hanji (Korean traditional paper) have a great aesthetic value

### 3. Review of Publications about Seowon in English and other Foreign Languages

The reason to review the recent publications about seowon (focusing on those written in English language) is to see the ways how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is presented to an outside world. This presentation specifically focuses on publications that recently appeared in Internet and other media (both popular and scholarly/educational) that may have an interest for a large audience and shapes up the image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Fig. 7-9).



Sang-hae Lee (2005). Seowon: The Architecture of Korea's Private Academies (Korean Culture Series #2)



Wikipedia page about Seowon (general information). Available in languages: English, Korean, French, Russian, etc.

Figure 7. Popular Books and General Information about Seowon from Internet

## Seowon on Youtube & M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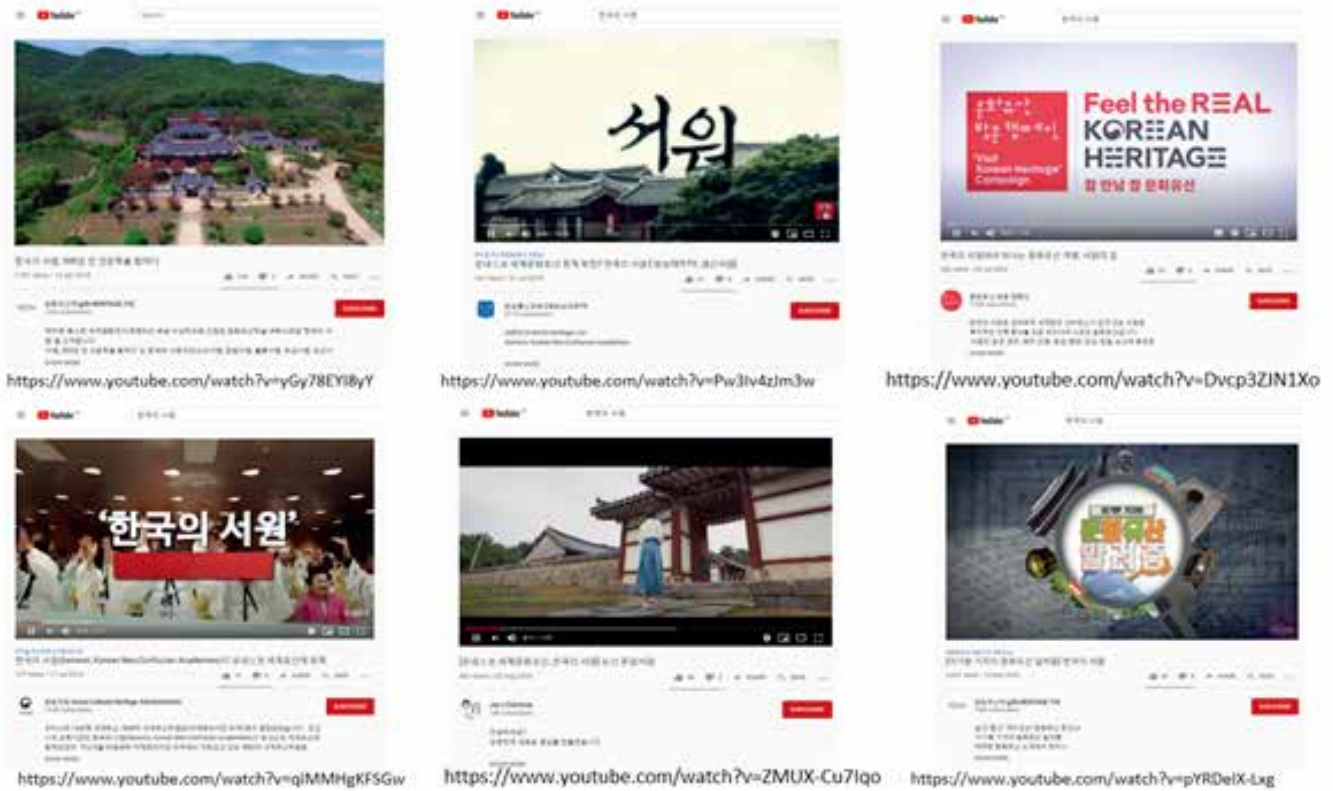


Figure 8. Seowon's Presentation on Youtube

## Seowon in Various Media and its International Recognition



Korean Drama/ Movie	Computer Game
	
(신입사관 구해리) (MBC, 2019)	Computer game: Civilization IV
Drama was filmed at Sosuseowon Confucian Academy [소수서원]	Seowon appearance in the game
<p>"Sosuseowon Confucian Academy, Yeongju / Sosu Seowon [소수서원] was a 'Seowon' [서원], i.e. a local private prep school, established by a local county chief, Ju Sebung, in 1541. It is the first of its kind whose name was bestowed by the throne. In fact, Seowons were the most common education institutions in mid- to late Joseon Dynasty. These institutions mainly served preparing children from the aristocratic class for the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s."</p>	<p>"An educational crisis in 16th Century Korea brought about the seowon, a private institution designed to fill the scholarly void. The heavy emphasis on Confucian teachings and rituals were often expressed in the modest appearance of its structures. The preponderance of aristocratic children attending made the seowon ideal for discussing politics. This blend of Neo-Confucianism and topical matters created an ideal setting to explore new ideas about Korea's contemporary culture and government."</p>

Figure 9. Apperance of Seowon in Various Media

#### **4. Ways and Potential of Korean Seowon Cultural Heritage to be Well-recognized and Presented to a Foreign Audience**

This presentation tries to outline the ways and potential of Korean Seowon cultural heritage to be well-recognized and presented to a foreign audience, including international tourists. For this purpose, it reviews several both popular and scholarly/educational sources of information on Seowon Neo-Confucian academies available in English language.

It seeks to engage in a Conference's discussion of Seowon's academies role for a broad understanding and representing of Korean traditions and culture,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contribute to a discussion on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s perception and presentation to the outside world.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Seowon, Korean**
- **Neo-Confucian Academies**
- inscribed on the World
- Heritage List in 2019
-

# ‘한국의 서원’의 지속가능한 보호·관리 방안

한 필 원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 <요 약>

이 발표에서는 유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의 지속가능한 보호·관리를 위해 고려해야 할 문제들과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해 제시하고 한다. 먼저 ‘한국의 서원’ 보호·관리의 잠재적인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해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바탕으로 ‘한국의 서원’의 보전상태를 파악한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 신청 시 이코모스가 평가서에 제시한 보호·관리 관련 권고사항들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유산 보호·관리의 체계에 대해서 『세계 문화유산의 관리(Managing Cultural World Heritage)』(UNESCO / ICCROM / ICOMOS / IUCN, 2013)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한국의 서원’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문제는 법제의 통합과 주민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과제는 이들 각각에 대해서 원칙과 방법을 정립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발표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첫째, 보호·관리 관련 국내외 법제의 통합 문제를 논한다. 문화재보호법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한 국내법과 제도, 그리고 유네스코의 지침과 매뉴얼, 이코모스 현장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기준을 통합해서 일관되게 적용하는 방안을 논한다.

둘째, 지역주민이 보호·관리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방안을 논한다. 서원 관계자,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가 보호·관리의 제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보호·관리의 지속가능성에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 그 실천방식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 발표에서는 ‘한국의 서원’ 보호·관리에 주민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를 제시한다.

# Proposals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Korea's seowon

Han Pilwon

(Department of Architecture, Hannam University)

This presentation will propose the problems and challenges of ensuring the sustainabl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Korea's seowon as World Heritage Sites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methods and international standard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such sites. First, to understand the potential problems related to protection and management, the current status of the management of Korea's seowon is examined, and the recommended protection and management guidelines provided based on a review conducted by 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when Korea applied for its seowon to be registered as World Heritage Sites are examined. Next, the typical heritage site management and protection structure is considered based on the content of Managing Cultural World Heritage (UNESCO, ICCROM, ICOMOS, and IUCN, 2013). According to this document, the core issues of managing and protecting Korea's seowon are the unification of laws and participation of locals. It also states that finding standards and methods for addressing both of these issues will be future challenges. This presentation discusses these two problems, as outlined below.

First, the challenges of unifying protection and management law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re explored. Also, methods of unifying and applying domestic laws and systems, such as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nd Special Act for World Heritage Site Protection, Management and Usage, are surveyed, and related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UNESCO's guidelines and manual and ICOMOS' charter, are examined.

Second, ways of encouraging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seowon are looked at. In the long term, it is crucial that interested parties, such as the members of seowon management, and local residents all participate in protection and management efforts, but there is no proven method for achieving that. Therefore, a standard for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Korea's seowon is proposed.



## 1. ‘한국의 서원’의 보호·관리 현황

### 1) 보전상태와 주요 문제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2018)를 바탕으로 ‘한국의 서원’의 보전상태와 주요 문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보수공사

- 콘크리트 등 새로운 재료 사용

#### ② 기록화

- 단청 등의 정밀조사, 복원도 작성

#### ③ 지원·서비스 시설

- 양식, 형태, 디자인

#### ④ 주변 경관

- 인접 활용시설, 마을, 주변 시설물, 도로와 주차장, 조경

#### ⑤ 자연재해

-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집중강우와 강풍<sup>1)</sup>, 지진 대비

### 2) 이코모스 세계유산 등재 평가서의 권고사항

이코모스의 세계유산 등재 평가서 권고사항 중 보호·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개발 중으로 평가한 내용

- 통합 관리 문서

- 위험 대비 계획 및 체계

- 9개 서원을 하나의 문화재로 통합 설명

#### ② 당사국 고려 사항

- 서원을 통합 관리하는 문서의 개발을 완성할 것

- 9개 서원을 하나의 문화재로 통합 설명하는 방안을 발전시킬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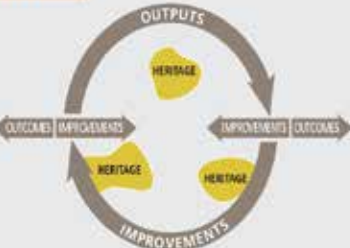
---

1) 한반도가 위치한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대표적인 기후변화 현상이다.

## 2. 유산의 보호·관리 체계

일반적으로 유산관리 체계의 틀은 다음과 같이 3개 범주, 9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2)

표 1. 유산관리체계의 일반적 틀

범주	구성요소	설명
<b>3 elements</b> 	- 법적 틀	법적 근거
	- 제도적 틀	조직과 의사결정
	- 자원	작동을 위한 인적, 재정적, 지적 자원
<b>3 processes</b> 	- 계획	
	- 실행	
	- 모니터링	평가의 자료
<b>3 results</b> 	- 성과	목표 달성
	- 산출물(output)	유산과 사회 지원, 성과를 얻는 데 필요한 것
	- 개선	모니터링, 산출물·성과의 평가를 통한 피드백, 결여된 부분과 새로운 요구에 대응

요약하면, 지속가능한 보호·관리 체계란 타당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과정을 거쳐 성과를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유산의 관리에서 추구하는 전형적인 목표와 과정, 성과는 다음의 표2와 같다. 3)

2) Managing Cultural World Heritage, UNESCO / ICCROM / ICOMOS / IUCN, 2013, 53쪽

3) Managing Cultural World Heritage, UNESCO / ICCROM / ICOMOS / IUCN, 2013, 106, 107쪽

표 2. 세계유산 관리의 전형적인 목표와 성과, 산출물, 과정의 관계

성과 1	성과 지표 목표 달성 확인	산출물 성과에 기여	과정/산출물 지표 과정의 효율성, 산출물의 질, 더 큰 목표 달성을 위한 역할 확인	유산 과정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산출물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문자 만족 영향 받는 다른 성과들</li> <li>-방문자 인식과 지원 증대</li> <li>-OUV와 다른 문화적 가치의 증진과 보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적 지표(방문 시간과 회수)</li> <li>-질적 지표(방문자 만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로운 방문자 여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적 지표(방문 시간과 회수)</li> <li>-질적 지표(방문자 만족, 정확성)</li> <li>-적시성(성수기에 시간 지키기)</li> <li>-양립성(방문자 희생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적 지표(방문 시간과 회수)</li> <li>-(표지판, 음성 안내, 웹 플랫폼, 순환 개관 등으로) 방문자 여정을 계획, 실행, 모니터링 한다.</li> </ul>
성과 2	성과 지표	산출물	과정/산출물 지표	유산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산에 혜택이 돌아가는 유산 주변 지역사회의 번영</li> </ul> <p>영향 받는 다른 성과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UV와 다른 문화적 가치의 보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경제 자료에서 고용 수준 등의 추세</li> <li>-범죄, 땡땡이, 반달리즘 같은 사회적·환경적 통계의 추세</li> <li>-새로운 형태의 유산 지원</li> <li>-방문자가 지역에서 숙박하는 연간 일수</li> <li>-지역 관광, 재방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련의 유산 친화형 사업 기회</li> <li>-새로운 협력관계, 새로운 후원자</li> <li>-지역 경제 부양을 위한 새로운 인재 모집</li> <li>-도시환경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적 지표(예로 자금 조달이나 협력자/신입직원 /직장 창출 수)와 빈도(예로 방문자)</li> <li>-질적 지표</li> <li>-적시성</li> <li>-포용성</li> <li>-유산 요구와 양립성</li> <li>-책무의 범위와 기간</li> <li>-지역사회 만족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산 관련 시장 기회 확인</li> <li>-협력자와 투자 유치</li> <li>-새로운 사업 계획에 대한 창업 자금</li> <li>-도시재생 마스터플랜</li> </ul>
성과 3	성과 지표	산출물	과정/산출물 지표	유산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UV와 그 밖의 문화적 가치 보호</li> </ul>	<p>(효과적인 성과 지표가 없으면 관련 산출물과 과정의 평가에 근거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첫 번째 산출물: 지붕 수리</li> <li>-두 번째 산출물: 유적지 돌봄의 장 기 비용 절감 / 관리 절차 단순화</li> <li>-첫 번째 산출물: 새로운 자료</li> <li>-두 번째 산출물: 통계, 추세</li> <li>-세 번째 산출물: 부식 메커니즘 이해 / 보전 접근방법 개선 / 저렴하고 단순한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적 지표(수와 전체 면적)</li> <li>-유효성(디자인과 수명)</li> <li>-적시성</li> <li>-비용(적정 가격, 관리를 위한 접근 용이성)</li> <li>-환경(0km 재료)</li> <li>-양적 지표(자료, 기간)</li> <li>-질적 지표(자료 이중화, 정확성, 관련성)</li> <li>-적시성(계절적 변동)</li> <li>-비용(일상적인 재정 조달로 지속 가능)</li> <li>-자료 접근/사용</li> </ul>	<p>사례 1: 유산의 속성을 위협하는 불안정하고 비가 새는 지붕 수리와 장기적 관리에 필요한 접근로 확보</p> <p>사례 2: 환경 모니터링과 자료 분석</p>



### 3. 보호·관리 관련 법제 문제

「문화재보호법」과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국내법에서 규정한 보호·관리의 기준·방법과 『세계 문화유산의 관리(Managing Cultural World Heritage)』(UNESCO / ICCROM / ICOMOS / IUCN, 2013) 등 유네스코의 매뉴얼·지침과 버라헌장(Burra Charter) 등 이코모스 헌장에서 제시된 국제적 기준·방법 사이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보호·관리를 위한 계획의 명칭부터 종합정비계획, 세계유산 시행계획, 유산관리계획 등으로 다르며 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에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

앞으로 국내외의 법적, 제도적 규정을 통합해서 ‘한국의 서원’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매뉴얼(『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2011)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완해서 ‘한국의 서원’의 지속적인 보호·관리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통합 매뉴얼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관련 계획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는 다음 그림 1에서 보듯이 복잡하게 시행되는 국내외의 관련 제도에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림에서 \* 표시는 세계유산센터와 문화재청에 신축·복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 자료로 제출하는 것을, » 표시는 세계유산센터(ICOMOS)와 문화재청(문화재위원회)에서 신축·복원 사업을 심의할 때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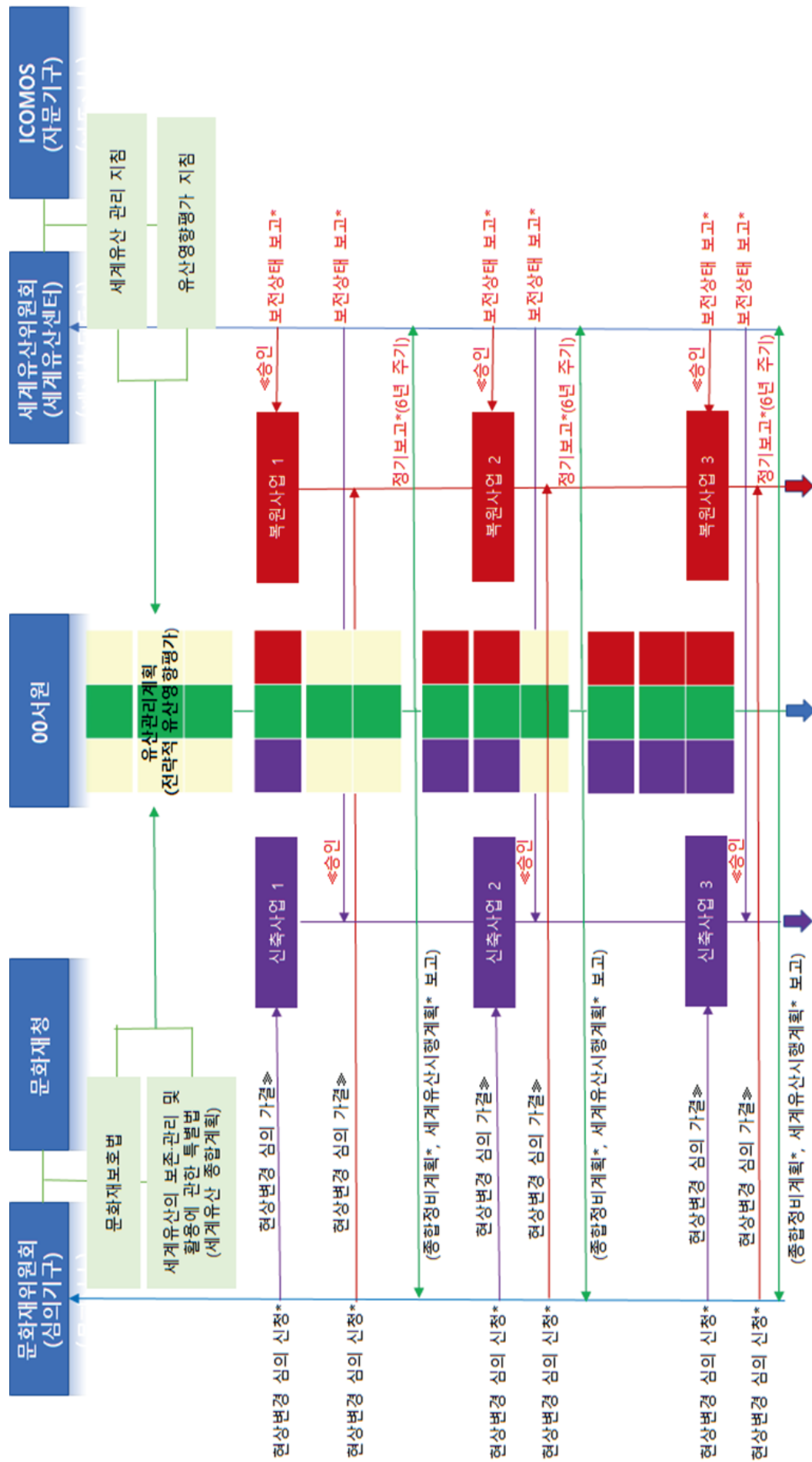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의 서원' 보호·관리계획의 활용 절차와 방식

#### 4. 보호·관리의 주체 문제: 주민 참여

보호·관리는 주체가 뚜렷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보호·관리를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속가능한 보호·관리에서 매우 중요하다. 세계유산의 보호·관리에서는 일반적으로 관, 전문가, 지역공동체 혹은 주민이 협치(governance)를 이루어 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현재 9개의 서원이 모두 국가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의 서원’의 보호·관리는 행정적으로는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과 각 서원의 조직이 보호·관리를 위한 실제적인 활동을 계획, 실행하고 있다.

현재 모든 한국의 세계유산 보호·관리에서 주민의 참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본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에서와 같이 유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협의회를 결성해 세계유산의 보호·관리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지역공동체 혹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협치(governance)의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실정이다. 그런데 유산의 보호·관리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 특히 지역 주민과의 갈등은 주민 참여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

최근 유산의 보호·관리에서도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그 핵심 요건은 지역공동체 혹은 주민의 참여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유산을 장기적으로 보호·관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에 따라 「버라 헌장」(2013)의 ‘버라헌장 과정(The Burra Charter Process)’에는, 서원과 같이,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의 모든 단계에 지역사회와 이해당사자가 관여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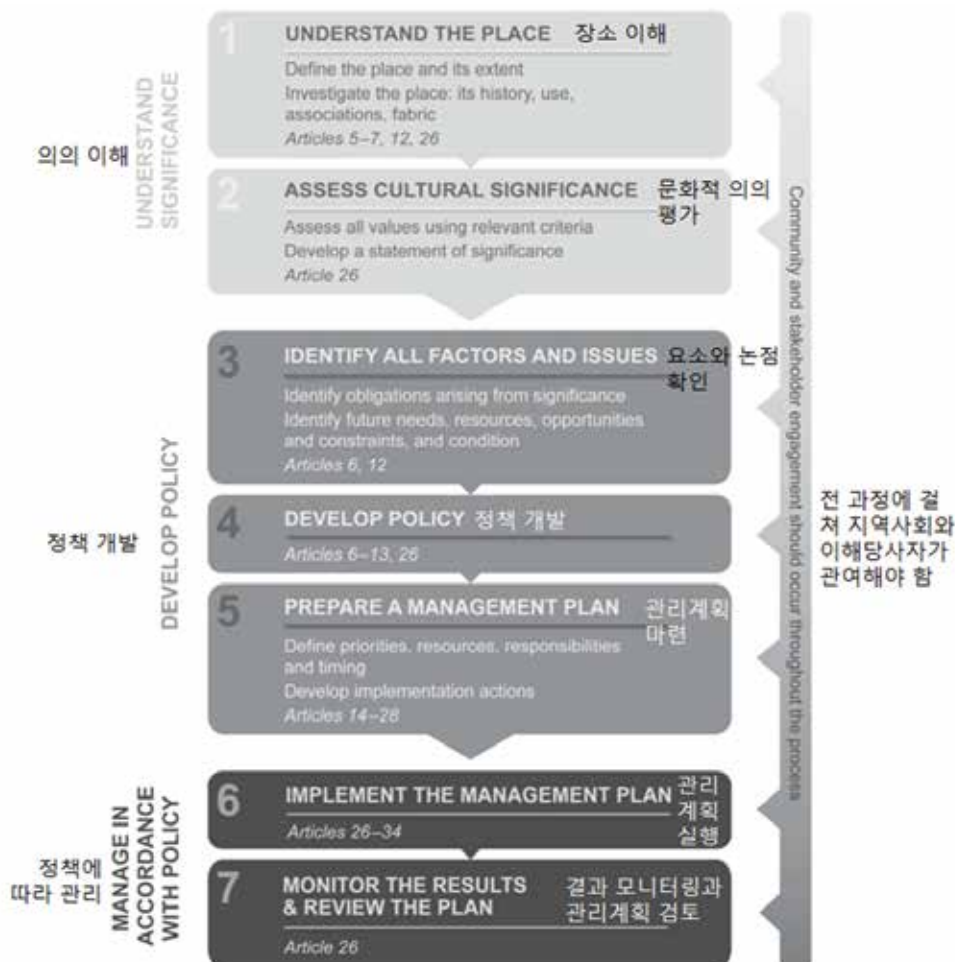


그림 2. 버라 헌장의 과정



‘한국의 서원’의 지속가능한 보호·관리에도 주민 참여는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본다. ‘한국의 서원’의 보호·관리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체계를 갖추고 주민 참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의 서원’의 보호·관리에 주민이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4)

표 3. ‘한국의 서원’의 보호·관리에 주민이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들

항목	기존 상황	필요한 변화
목표	- 보호·관리만을 지향 - 주로 방문자·관광객을 위한 보호·관리	-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함께 추구 - 지역 주민을 우선, 더 고려해 보호·관리
협치	- 중앙정부, 지자체 주도	- 서원 관계자, 주민 등 이해당사자 집단을 아우르는 협치
지역 주민	- 주민과 대립하는 계획, 관리 - 지역 여론을 고려하지 않는 관리	- 주민과 함께, 주민을 위해서, 때로는 주민에 의한 계획과 관리 -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관리
맥락	- 유산을 별도로, 독립적으로 생각 - 섬으로 관리	- 국가, 지역, 국제 체계의 일부로 계획 - 네트워크 혹은 시스템으로 관리(유산구역, 완충구역, 주변 환경)
인식	- 주로 국가의 자산으로 생각 - 국가적 관심사로만 생각	- 지역사회의 자산으로도 생각 - 국제적 관심사로도 생각
관리 기법	- 단기적인 대응 관리 - 기술 전문가의 방식으로 관리	- 장기적인 적응 관리 -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고려
재정	- 세금으로 충당	- 다양한 재원으로 충당
관리 기술	- 전문가에 의한 관리 - 전문가 주도	- 다양한 기술을 가진 다수에 의한 관리 - 지역 지식 활용

4) Adrian Phillips가 자연유산에 대해 개발한 ‘보호지역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참고했다.(Phillips, A. ‘Turning ideas on their head: the new paradigm for protected areas’, in: The George Wright Forum 20, No. 2. 2003, 8~32쪽, Managing Cultural World Heritage, UNESCO / ICCROM / ICOMOS / IUCN, 2013, 16쪽에서 재인용)

## □ 참고문헌 □

- 한필원, 「한국세계유산의 보호관리 및 홍보활용 현황과 과제」, 『마한백제문화 30집』, 2017. 12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신청서』, 대한민국, 2018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평가서」, ICOMOS, 2019
- The Burra Charter: The Australia ICOMOS Charter for Places of Cultural Significance, 2013
- Managing Cultural World Heritage, UNESCO / ICCROM / ICOMOS / IUCN, 2013

## 한국의 서원, 역사문화적 가치와 활용방안

이 해 준 <sup>1)</sup>  
(공주대 명예교수)

### <요 약>

본 발제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의 서원 문화를 향후 ‘어떻게 계승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서원, 조선의 선비문화가 자랑스럽게,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정신사의 고급브랜드로, 미래 경쟁력으로 한 단계 더 높게 되살려지기를 기대한다.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지성의 요람이자 주요 활동장소였다. 서원은 당시 성리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과 문화, 그리고 지성 활동의 구심점이었고, 한국 정신문화의 저변을 형성하고 그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상징적 유산이다. 조선시대 서원 문화는 자기 수양의 정신자세 및 도의와 염치를 알고 도덕을 몸으로 실천했던 조선시대 선비들의 학문적 삶, 도덕적 실천의 장이었다. 교육과 지성문화의 전당이자, 자연과 학연, 공론의 요람이었다. 그리고 서원은 제향, 강학, 교류와 회합의 공간이면서 유교문화가 살아 전승되는 자료관·박물관으로 한국의 유교, 선비문화의 다양성과 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유산이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에서 주목하는 9개 서원의 계승 활용에서는 한국의 서원이 지닌 고품격, 지성적, 역사적 의미를 극대화하여 1)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 서원문화의 특성과 종합성(경관, 지성, 교육, 의례, 인물, 유적)을 콘텐츠 화하여 활용하고 2) 이중 9개 각 서원별 독특하고 특별한 문화자원들을 콘텐츠 화하여 개발하며, 3) 수요층을 고려하여 수요층별 관심과 기대에 대응할 다양한 프로그램(연령, 그룹, 주제별 유기화)으로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세계유산 9개 서원의 연계 활용은 크게 9개 서원 연계 투어, 테마별 서원 연계 프로그램, 서원유림 교류회, 한국의 서원문화축제 개최를 제안하여 보았다.

이상 간략하게 향후 9개 서원별 계승과 활용, 그리고 9개 서원의 연계 활용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안하여 보았다. 물론 이 제안과 방향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9개 서원이 공동으로 이 방안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한국의 서원문화가 올바르게 가치 있게 전승, 활용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1) 현)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목포대 교수(81-94), 한국역사민속학회(96-98)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99-01), 역사문화학회(08-10), 공주대 문화유산대학원장(11-13), 한국서원학회(11-1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05-15), 공주대 사학과 교수(94-19) 역임.



# Korean seowon, their historical value and ways of utilization today

Lee, Haejoon

(Honorary professor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is presentation, while commemorating the first anniversary of Korean seowon being registered as World Heritage Sites, is about a proposal on how to hand down Korea's seowon heritage and make the best use of it going forward. We are hoping to turn Korean seowon and the Joseon scholar's way of life into a global brand that promotes Korea's intellectual history and provide a competitive edge for the future.

Korean seowon were the cradles and home grounds for the brightest minds during the Joseon period. Seowon were not just for advancing Neo-Confucianism but served as local educational, cultural and research centers. They were the basis for Korean intellectual and culture, and they were the symbols for advancing it. Scholars knew about the mental state, morality and honor of self-cultivation, and they put them into everyday practice. The Joseon seowon tradition represented the scholar's exercise of both moral and intellectual life. The seowon were spaces for ritual, instruction, relations and social gathering, and they were also a living library and museum for Confucian culture. Today they stand as a legacy that shows diverse lifestyl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Confucian scholar in traditional times.

At this conference, we introduce strategies to keep the seowon spirit alive and utilize the nine seowon designated as World Heritage Sites, thereby making the most of the seowon's highbrow educational and historical significance: (1) Turn the characteristics and totality (scenery, education, rites, people and sites) of the Korean seowon tradition into contents. (2) Develop the unique cultural assets of each of the nine seowon into different content packages. (3) Understand each target audience and develop diverse programs to accommodate their interests and needs (according to users' age, group affiliations, and subject matter). Finally, for activities that encompass all nine World Heritage seowon, we propose a tour the visits each site, programs linked to the seowon theme, reenactments of seowon Confucianist meetings, and a Korean seowon culture festival.

This summarizes a proposal for perpetuating and utilizing the nine seowon, and offers guidelines for a joint utilization of the sites. Of course, these proposals and guidelines are not perfect but, in the future, the people in charge at each seowon can review and revise these proposals to help pass on the Korean seowon tradition to future generations and utilize the seowon in the most equitable and beneficial manner.

## <본 문>

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특성과 가치
2. 서원 문화 활용 현황과 과제
3. 9개 서원별 계승과 활용 방향
4. 세계유산 9개 서원의 연계 활용

지난 해 7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반 서원 제도의 도입으로부터 한국사회에 서원이 정착하고 발전하는 17세기 중반까지의 역사와 건축적 특징을 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증명하는 문화유산이라는 점, 그리고 특히 한국의 9개 서원은 중국이나 일본·베트남과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특성을 잘 보존·정립한 사례이자 성리학이 동아시아 전역에 확산되어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며 꽃피운 중요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리하여 ‘한국의 서원’에 깃들어 있는 교육과 정신, 그리고 문화적 전통은 한국의 문화 브랜드로서 세계에 그 가치를 새롭게 알리게 된 것이다.<sup>2)</sup>

오늘의 학술세미나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하여 현대적 계승과 세계화라는 주제로 기획된 자리이다.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 가치와 특성에 대하여는 본 발제에 앞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조명하여 주시고, 본 발제는 향후 한국의 서원 문화를 향후 ‘어떻게 계승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작은 제안이라 보면 좋을 듯하다.

발제자는 이 발제를 통하여 지성인의 핵심 덕목이라 할 지성과 도덕적 실천, 어른스러움의 대명사였던 조선의 선비문화가 서원문화를 통하여 자랑스럽게,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정신사의 고급브랜드로, 미래 경쟁력으로 되살려지기를 기대한다.

---

2) 이상해, 2019, 「한국의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 과정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 『한국서원학보』 9호, 한국서원학회. 이배용, 2020,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선비정신」, 『서원 - 어진 이를 높이고 선비를 기르라』, 국립전주박물관.

## 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특성과 가치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지성의 요람이자 주요 활동장소였다. 서원은 당시 성리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과 문화, 그리고 지성 활동의 중심점이었고, 한국 정신문화의 저변을 형성하고 그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상징적 유산이다. 조선시대 서원 문화는 자기 수양의 정신자세 및 도의와 염치를 알고 도덕을 몸으로 실천했던 조선시대 선비들의 학문적 삶, 도덕적 실천의 장이었다.

· **교육과 지성문화의 전당** : 한국의 서원은 교육과 한국지성문화의 요람이었다. 서원문화에서 보여진 이들 고급 지성들의 개성과 학문적 삶, 도덕적 실천의 삶은 현대 지성들이 귀감을 삼고 더욱 부러워해야 할 모범이라 할 만하다.

한국 서원은 저명 성리학자를 제향 하는 곳이면서, 각 지방의 고급 인재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접촉, 교류했던 공간이자 상징적 기구였다. 특히 한국 서원의 진면목은 자신들이 존경하고 멘토로 삼는 스승의 연고지에 후학과 문인들이 건립하고, 제향과 함께 그 정신을 이어간 것에서 잘 나타난다. 서원은 일방적인 지식 전수가 아닌 강론과 학문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여론과 공론의 결집처로서 지역 지성사의 거점이 되어 문화적·사회적 활동은 물론 정치적 활동까지 전개하였다.

· **지연과 학연, 공론의 요람** : 또 한국의 서원은 향촌사회의 문화거점이자 지성사적 활동 공간으로, 지연과 학맥, 때로는 정파의 연대와 교류의 거점이었다. 즉 서원 건립이 왜 그 시기에, 그곳에, 그리고 어떤 주체세력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9개 서원이 각각 특징 있는 여러 모습들로 밝혀진다. 9개 서원들은 각각 건립 이래 지역별로 그들 세력을 양성하고, 사회·정치 활동의 근거지로서 지역 사림의 공론을 형성하고, 여론을 ‘수렴’, ‘결집’, ‘소통’, ‘대변’하는 거점 역할을 했다. 이 같은 공론 형성과 사회적 역할은 중국이나 일본의 서원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한국 서원만의 특성이다. 그리하여 서원은 지역 지성들의 활동 거점으로 국난기에 의병 창의라든가, 연명상소, 격렬한 학문토론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 **제향, 강학, 교류와 회합의 공간** : 한국 서원의 공간 구성은 다른 나라의 서원들과 차별화되는 특별한 성격으로, 제향공간인 사우와 강학공간인 강당, 교류와 회합의 공간인 누정 등의 건축물들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 오랜 역사와 정형화의 과정도 중요하며 탁월한 사례라는 점이 인정을 받는다. 모든 서원을 상징하는 사우와 강학공간과 함께 교류와 회합의 공간으로 도산서원의 경림정, 병산서원 만대루, 남계서원의 풍영루, 필암서원의 학연루, 옥산서원의 무변루, 돈암서원의 응도당 등은 대표적 건물들이다.



· **유교문화 자료관·박물관** : 이처럼 한국의 서원은 단지 저명한 성리학자를 추송하고 제향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과 의례의 거점 공간인 동시에 지성사적 문화전통을 대표하는 곳이었다. 즉 조선시대 선비의 학문성과 도덕적 실천성, 개성을 보여주며, 지역 문화의 역사성과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곳이 바로 서원인 것이다. 그런가하면 한국의 서원은 ‘한국 유교문화의 자료관, 박물관’으로 일컬어질 만큼 다양하고 특징적인 유형, 무형의 자료들을 간직하고 있으며, 서원의 역사와 전통, 건축, 경관, 기록유산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은 바로 이러한 유교, 선비문화의 다양성과 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

## 2. 서원문화 활용 현황과 과제

일반인들에게 서원은 ‘제사 지내는 곳’, ‘한자 공부하는 곳’, ‘문중의 유적’, ‘비슷한 건물 배치’ 등으로 서원의 가치와 의미, 진정성이 잘못 전달된 경우가 많다. 이런 탓으로 서원은 다른 문화유산에 비해 활용이 매우 저조했다. 최근 들어 문화재청에 의하여 ‘문화재 활용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서원활용과 이해가 전에 비하여 많이 진전,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활용사업들에서 보이는 콘텐츠들을 보면 60-70%가 유사하고, 일반적인 것들이 많다. 그리하여 해당 서원의 특화된 문화가 보이지 않고, 더욱이 진정성의 측면에서 서원 문화와 다른 사례들이 접목된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서원문화의 지성사적 성격을 감안할 때 수요층도 유아와 초등생이 많은 점, 그래서 시기도 방학이나 주말을 한정할 아쉬움이 크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해하면서, 우리들이 다시 생각하여 볼 것은 이러한 진정성을 훼손하거나, 일반성이 주도하는 활용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9개 서원의 경우는 해당 서원이 지닌 문화적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올바르게 전하려는 의식과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4)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9개 서원들은 각각의 독특한 문화 특성들을 간직하고 있다. 9개 서원의 특징과 성격은 대개

- 소수서원 : 1543년 건립. 安珦 제향, [최초 사액서원, 경관, 제향(도동곡), 문서]
- 남계서원 : 1552년 건립. 鄭汝昌 제향, [경관, 건축배치의 정형화, 의병(향촌)활동]
- 옥산서원 : 1573년 건립. 李彦迪 제향, [건축, 고문서, 옥계구곡]

3) 이해준 외, 2018, 『한국서원의 전통가치와 현대적 계승』, 한국학중앙연구원(공저, 책임).

4) 이해준 외, 2015, 『한국의 서원 특화프로그램 계획』, 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 도산서원 : 1574년 건립. 李滉 제향, [퇴계학맥, 경관, 별시 강회, 장서 출판]
- 필암서원 : 1590년 건립. 金麟厚 제향, [호남수원(운영인맥), 자료문서, 현대강학]
- 도동서원 : 1605년 건립. 金宏弼 제향, [건축디테일, 소학, 경관]
- 병산서원 : 1613년 건립. 柳成龍 제향, [경관, 건축, 제향],
- 무성서원 : 1615년 건립. 崔致遠 제향, [지방관과 흥학, 병오의병]
- 돈암서원 : 1634년 건립. 金長生 제향, [호서수원(학맥), 예학, 예서 출판]

등으로 요약된다. 이들 서원들이 가진 문화유산 특성과 가치를 반드시 고려하고 주목하여, 향후 계승과 활용에 콘텐츠 화하고 특화하여야 한다.

현재의 서원들이 대부분 교육·강학, 지성적 기능은 사라지고 제향·의례 기능만이 남아 전해지지만, 건축·경관 구성상 내외 공간의 문화적 활용가치와 그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제향의례와 제향인물의 상징적 공간인 사우, 그리고 지성인들의 강회와 토론의 장이었던 강당, 지역 지성들의 교류와 회합의 공간이었던 누정 등등이 각각의 역사와 문화를 지니며 존속해 왔다. 그러나 건축물 활용도 제향과 관련된 행사가 가장 많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지역의 유림이나 문중 후손들이 대부분이다.

이제 앞으로의 서원문화의 계승과 활용에서 숙고할 과제는 후손이나 유림 중심의 제향(인물)과 건물 보존에서 나아가, 서원문화의 종합성과 특성을 개발한 서원특화 콘텐츠의 발굴, 활용의 의지가 필요하다. 기존의 서원문화가 인물(추송), 후손, 제향, 의례 중심으로 축소, 굴절되었다며, 이를 이번 기회에 탈각하여 서원문화가 지닌 정치, 교육, 의례, 도서 출판, 창작예술 등 종합적 성격을 이해시키고, 특히 지역과 학맥, 지성사적 활동의 전당이었음을 역사와 자료, 인맥과 학맥으로 밝혔으면 한다.

그리하여 ‘지성사의 거점으로서 고품격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아늑한 공간’, ‘서원의 보편성과 특수성(인물제향 등)’이 함께하는 각 서원문화의 가치를 보다 일반인들에게 다가가기 쉽게 만들어 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서원 활용을 주도하고 기획하는 단체들의 전문성과 서원 특성에 맞는 활용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신중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활용 단체들의 해당 서원에 대한 기본 지식과 지성사적 문화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으로, 각 서원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유사, 동일 프로그램을 진행, 반복하는 사례가 많다. 그리하여 서원들의 특화 자원 활용이 미흡하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 또 유·초년생이 중심이 되고, 엘리트 층이나 지성인들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대상층이 축소 굴절되기도 한다. 한편 즐기고 흥미로운 것에 치중하여 진정성이 훼손되는 경우도 많으며, 지성사, 문화예술과의 연계 노력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서원의 특화와 활용 프로그램 제안자들이 새로운 면모를 보여야 할 때인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원연구자나 서원관련 유림들이 함께 하는 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조선시대 정신문화의 상징인 서원문화의 계승, 활용이 의례적인 춘추향사만을 지내는 곳으로 각인되어서도 안 되고, 현재처럼 의례, 문중행사 등으로 활용 층이 제한되는 것도 문제이며, 유·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예절, 한문, 인성교육,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천편일률적 운영도 문제이다. 서원문화의 계승 활용은 해당 서원의 지역 지성사적 전통, 제향인물의 학문, 강학 유서, 다른 서원과 구별되는 독특한 문화특성을 소재로 계승 활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에서 주목하는 9개 서원의 계승 활용에서는 한국의 서원이 지닌 고품격, 지성적, 역사적 의미를 극대화하여 활용시키되,

-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 서원문화의 특성과 종합성(경관, 지성, 교육, 의례, 인물, 유적)을 콘텐츠 화하여 활용하고
- 이중 9개 각 서원별 독특하고 특별한 문화자원들을 콘텐츠 화하여 개발하고,
- 수요층을 고려하여 수요층별 관심과 기대에 대응할 다양한 프로그램(연령, 그룹, 주제별 유기화)을 개발 하였으면 한다.

### 3. 9개 서원별 계승과 활용 방향

한국의 9개 서원은 한국 유교문화의 다양성과 지역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 서원들이다. 서원은 조선시대 선비의 학문성, 도덕적 실천성,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고 있으며, 서원은 저명 성리학자 추송·제향 하는 공간이자, 지역의 교육, 지성사적 문화전통을 대표하는 곳, 철학적 사색과 문학적 창의성을 공감하게 하는 우수한 경관 자원까지 갖추고 있는 곳이다. 지역 교육, 의례의 거점 공간인 동시에 지성사적 문화전통을 대표하는 곳이며 유·무형의 역사, 교육, 제향(의례), 건축, 경관, 문학, 인물 등 다양한 문화유산 종합 보존처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서원문화는 “유형적” 문화자원과 함께 훨씬 더 중요한 “내면적 특징과 지성적 품위”를 지니고 있다. 서원에서 실현한 선비들의 지성 문화는 과거에도 의미가 있었지만 오히려 학문토론, 사회교육, 비판과 실천 등이 강조되는 ‘문화와 지성의 세기’에 필적하는 현대와 미래 지성사회에 더욱 필요한 계승과 활용의 방향이자 가치일 수 있다.

#### 3-1. 기본 방향과 콘텐츠의 선정

서원문화는 본래 지성사, 정신사, 천인합일의 경관 속에서 소규모 엘리트 문화로 체험되고, 고품격으로 차별화되었던 문화이다. 교육과 정신문화가 황폐화되는 현실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그리고 세계적인 한국문화 브랜드로서 서원문화는 이러한 본연의 정신과 문화를 계승 재생시켜 활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럴 때 진정한 서원문화의 계승과 활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발제자는 활용의 콘텐츠 선정에서 무엇보다도, ① 9개 서원이 지닌 한국 서원문화의 특성, 종합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② 서원별 차별성과 경쟁력 있는 지성사적 전통(경관, 학맥, 지성, 교육, 의례)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그래야 조선의 서원문화가 지니고 있던 ‘고품격과 지성적 가치’, ‘교육, 지성, 문화교류의 가치’, ‘경쟁력 있는 문화체험 공간’, ‘9개 서원별 특화된 콘텐츠’ 등이 빛을 발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를 계승, 활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고품격과 지성적 가치 재생** : 서원문화의 계승,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고품격과 지성적인 가치와 모습을 재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서원의 역사문화적 특성과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원문화의 진정성이나 가치를 훼손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사실 현재의 서원에서 조선시대 지성의 품격과 권위, 그리고 스승과 학생의 수준을 찾기는 매우 힘들다. 시대가 달라졌고, 과거에 비하여 부족하고 열악함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며, 한편으로 이는 활용 활성화에 앞서서 가장 먼저 생각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발제자는 어쩌면 활용과 선후로 짝을 이루면서 추구하여야 할 과제가 바로 이것이라고도 생각된다.

한편 서원문화의 활용에서 수요층과 콘텐츠도 다시 생각해 보고 적합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 일부 서원에서 보이는 유아들이나 초등학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능하다면 그보다는 대학생과 청장년, 혹은 사회적 지성인들이 서원문화에 맞는다. 또 사자소학이나 천자문 강의는 서원에서 이루어질 체험이 아니다. 그보다는 인문학 강좌나 토론회, 학술세미나, 시문학 발표 등이 서원의 품격에 맞고, 가능하다면 서원에서 현대 사회이슈인 교육, 도덕, 정치, 시사 토론회 등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교육, 지성, 문화교류 가치의 전승** : 서원이 도덕성과 공공성,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여야 활용, 계승도 활성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자평과 자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서원문화는 권위적 건축물의 복원과 정비, 특히 가문 선조의 추숭이나 경쟁 모습으로 홍보되고 활용되었다. 그 의미와 가치가 크고 높다고 하더라도 특정 가문이나, 집단의 이해와 직결되는 것으로 비쳐질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9개 서원들은 가치 있고 차별화된 특별한 자원을 지닌 유산이다. 서원은 도덕과 지성, 교육, 문화교류의 장이었다는데 가치가 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저변에 물질과 경쟁 중심의 의식이 팽배한 상태에서 유교-서원문화 유산은 도덕성 결여나 교육과 정신문화의 황폐화 등 현실을 극복하고 도덕, 인성, 사회교육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자원으로 재생되고 계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서원별 특화된 콘텐츠 개발, 활용** : 9개 서원들이 각 서원이 지닌 특별하고 차별성이 있는 콘텐츠를 찾아 활용하지 않고 동일·유사한 콘텐츠를 활용한다면, 그리고 프로그램의 기법만 중시한 채 각 서원의 특성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 경쟁력은 저하,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

9개 서원은 한국 유교문화의 다양성과 지역적 특성이 집약된 문화유산이다. 이들 서원은 각기 다른 저명 성리학자를 추승, 제향 하는 공간인 동시에 지역 교육, 의례의 거점 공간으로 지성사적 문화전통을 대표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들 서원은 유·무형의 특별한 역사, 교육, 제향(의례), 건축, 경관, 문학, 인물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종합적으로 보존된 곳이기도 하다.

이들 서원이 가진 독특하고 차별적이고, 경쟁력 있는 자원을 교육과 체험, 참여 프로그램으로 콘텐츠 화하면 현대적, 지성적, 교육적으로 재인식되어 활용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활용자원의 성격에 맞는 연령, 성별, 성격 등을 고려한 수요층별 맞춤형, 유기적 활용콘텐츠의 선정, 개발, 홍보 자료집의 제작 등 수요층과 주제별 보조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면 효과는 더욱 상승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전통과 현대의 만남, 유림과 대화(철학, 문학, 역사기행) 등의 자리를 마련하면 활용효과는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발제자는 이에 더하여 **수요층과 대상, 경쟁력 있는 문화체험 공간으로의 활용**에 대하여도 좀 더 적극적이고 적합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초등학생보다는 대학생과 청장년이, 사자소학이나 천자문 강의 보다는 인문학 강좌나 학술세미나, 그리고 서원의 명성과 품위에 맞는 활용(문학·사상·역사 특강, 이벤트), 고급선비문화의 공간(역사 경관)이자 철학적 의미가 깃든 명소에서의 체험, 그리고 나아가 서원에서 현대 사회이슈인 환경, 정치, 여성문제, 시사토론회 등도 이야기 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것이 서원의 품격에 더 맞는다. 어쩌면 이를 콘텐츠화하면 현대적, 지성적, 교육적, 정적, 동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도 많아 문화적 복합기능을 지닐 수도 있을 것이다.<sup>5)</sup>

### 3-2. 서원별 활용, 특화 콘텐츠(유형)

향후 서원별 계승, 활용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가 바로 각 서원의 유산특징을 구안하여 서원별로 활용 콘텐츠를 선정하는 일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서원별로 8-10가지 자원을 선정하여 이를 관련 전문가나 유림들과 함께 토론하고, 경쟁력과 차별성 있는 활용의 구체적 방안을 만들었으면 한다. 이때 서원간의 연계성과 차별성도 감안하면 좋겠고, 자원 유형과 수요층, 활용의 구체적 방안 등도 모색되었으면 한다.

---

5) 나아가 이제는 대를 이어 유교문화의 내면적 가치를 이어갈 인력양성의 자체 시스템, 관련 전문인력의 광범한 적극적 동원(양성, 연계)도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서원 본연의 교육적인 기능면에서 보면, 각 서원마다 독특한 교육 방식과 운영의 모습들이 존재했던 개성적 공간이었다. 지역별 학맥, 사상, 교육방식 등은 각 서원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서원은 이러한 교육사상과 철학을 토대로 한 적절한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전통교육(강학)문화의 체험공간으로 활용가능성 또한 높다.

이를 토대로 특화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경쟁력 있는 콘텐츠 소재를 예들어 보면

- 교육, 유교의례의 문화 체험 : 돈암서원, 도산서원, 무성서원, 소수서원
- 경관, 건축 배치 : 소수서원, 병산서원, 도동서원
- 인물 사상과 학문, 정신사 : 9개 서원
- 제향과 의례 전통 : 소수서원, 옥산서원, 필암서원
- 서원문화 유적답사, 유물(기록) : 9개 서원(도산, 옥산, 필암서원)

등이 우선 지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특별한 경관과 기능, 제향 인물의 학문, 사상, 정치적 업적, 여론 및 공론의 결집처로서 서원이 지니는 사회사적 의미, 전통의례 이외에 각종 사회교육적 측면의 기록들, 다양한 유적과 기록 자료의 보존을 염두에 둔 프로그램, 활용을 차별성 있게 만들었으면 한다. 그런가하면 서원의 기능, 특성을 나누어

- 인물 중심의 서원 : 제향 인물과 관련
- 강학 중심의 서원 : 교육 및 학문활동
- 의례 중심의 서원 : 제향 등 의례와 의식의 이벤트화
- 유물 및 역사자료 중심의 서원 : 전시, 체험, 기행, 답사 등 학습장

등으로 특화하여 개발 활용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다.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자원특성과 경쟁력을 살린 서원별 특화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보면 의례, 교육 문화 체험인물 사상과 학문 정신사, 서원 유적답사체험, 경관, 건축자원 활용한 문화공간 활용, 유적과 유물, 자료관, 전시관 운영, 서원문화제 개최 등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 다음 표에서 보듯 서원별로 자원의 특성과 차별성을 바탕으로 여러 유형과 테마들이 구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프로그램 유형을 상기하면서 서원별 콘텐츠를 상정, 세부적으로 특화시키고, 해당 서원의 상대적 가치와 차별성을 부각시키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에 주된 수요층도 확정하여 이에 맞는 세부 추진계획과 체험, 참여 방법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 [예] 서원문화의 활용 프로그램 유형

유형별	주요 내용(예)	방법
교육의례	- 서원 제향 의례, 교육의례(강학, 시회) - 지역 사족 의례 : 향음례, 향사례, 향약, 향회	체험
전통교육	- 서원교육 및 강학 활동 프로그램. - 고강(시험), 서원 생활문화 체험, 유림과의 토론	체험 토론
인물사상	- 인물연구, 저술 자료집 편간 - 서원의 記文, 詩文 자료 - 발표, 교육, 토론 등 프로그램 특화	교육 토론 조사
문화유적	- 건물, 전적, 목판, 고문서, 금석문 유물 - 관련 주변 유교 유적 답사(고택, 누정, 재실, 묘소 묘비 등)	답사 발표
공간활용	- 학교교육과 연계, 문화 교육행사장으로 활용 - 고전 강독, 정신 학술 교육, 특강 등 - 지자체, 유림, 대학, 연구소, 교육청 등과 연계	활용
자료관, 서원축제	- 서원 문화 축제(인물, 학맥, 역사, 지성활동) - 전시관 : 인물 및 서원관련 유물 및 고문서, 전시 - 홍보자료 발간(서원문화, 제향인물), 교양서 안내서 발간	전시 홍보

두 번째의 예시는 각 서원별로 돋보이는 인물과 역사, 건축배치, 주변 유적 등을 콘텐츠로 선정하여 특화 주제를 삼고 그 구체적 활용방안을 다채롭게 구상하는 것이다. 서원별 특화된 테마로 대상 수요층과 성격에 따라 활용 콘텐츠를 만들면 특성과 차별·경쟁력도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다음과 같은 테마와 콘텐츠를 예시해본다.

### [예] 9개 서원별 특화 콘텐츠 예시

- 소수서원 향사의례, 거점과 강학 체험, 사색로 체험과 유물관 관람
- 남계서원 최초로 정형화된 서원, 일두 정여창과 서원 창건, 남계서원
- 옥산서원 회재 이안적의 자취를 따라, 서원에서 경험하는 선비문화(제향, 강학),  
유물이 말하는 회재와 옥산서원
- 도산서원 도산서원의 의례·강회 원생 체험, 퇴계학 지성캠프(강좌, 토론)  
예던길 걷기와 유적 답사
- 필암서원 하서의 도학과 호남성리학, 필암서원의 역사, 유물
- 도동서원 사액 봉행제, 소학이 남겨주는 메세지
- 병산서원 류성룡 리더십 교육, 상소로 본 소통의 한마당
- 무성서원 교화와 흥학의 터전, 강학과 병오창의, 서원 관련 유적 답사
- 돈암서원 호서 수원, 예학의 거점, 제향, 강학 체험 이벤트

그리고 이들 활용 프로그램과 기획에서 ① 주제 ② 자원특성과 프로그램 경쟁력 ③ 대상층 ④ 기본 방향 ⑤ 프로그램 일정계획 ⑥ 교육자료 ⑦ 소요인력 ⑧ 예산, 기자재, 기타 사항 등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타 서원과 비교, 검토, 보완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 4. 세계유산 9개 서원의 연계 활용

이상에서 각 서원별 특화와 활용을 전제로 하는 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면 이제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9개 서원을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4가지 정도 제안, 상정하여 보고자 한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9개 서원은 400여 년의 지속된 역사와 전통, 제향, 조직, 활동 등의 측면에서 한국 유학과 서원문화 전반을 대변하는 중요 유산이며, 각각의 탁월 문화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서원은

- 세계에서 가장 완비된 형태로 재현되는 서원 제향의식
- 지역 내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문화 활동의 중심역할
- 서원의 위치와 배치공간의 특수성 및 건물 건축의 우수성
- 다양한 도서와 책판, 고문서, 현판과 기문 등등의 문화유산이 보존된 곳

이라는 측면에서 그 가치와 의미가 부각되듯이 이를 연계하여 계승, 활용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면 한다.

바로 본 절에서는 이러한 9개 서원의 공통점과 특수성을 연계, 상생하여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과 방안을 간략하게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즉 서로 다른 역사 배경과 학문, 사상적 기반을 지닌 9개 서원들이 독자성(특성)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여기에 더하여 유사하거나 비교되는 다른 서원들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한국의 서원문화를 보다 가치 있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를 통하여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이 진닌 특징과 성격을 올바르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발제자는 세계유산 한국서원의 연계, 통합 프로그램으로 4개의 안, 즉 제1안으로는 한국의 9개 서원 연계 투어, 제2안으로는 테마별 서원 연계 프로그램, 제3안으로는 서원유림 교류회 등. 제4안으로는 한국의 서원문화축제 개최를 제안하여 본다.

· **1안「한국의 서원문화 투어」**: 이 기획은 영남, 호남, 호서 등 지역 대표 서원을 탐방하여 한국의 대표적 서원이 보여주는 독자성과 지역성, 대표성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답사 프로그램이다. 9개 서원으로 지역성을 상징하며 그 서원이 지니는 전통, 제향, 조직, 활동 등 각각 독특한 서원문화를 함께 살피고 비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층은 30명 내외로 9개 서원 유림, 전통문화 관련 대학생 및 대학원생, 문화유산해설사, 문화재 관리자 등 문화유산 관련 인력 등으로 하면 좋을 것이다. 일정은 1박2일로 3개 서원을 묶어 월 1회 3개월 연속 운영(코스별 운영, 토요일~일요일)하며, 총 12회로 4개 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하면 좋을 듯하다. 운영은 서원전문가(통합관리단, 전문위원)의 인솔, 특강으로 진행하고, 해당 서원들은 안내해설(전문가, 서원장의)과 안내자료 준비하고, 참가자들은 소감 및 답사 기행문을 제출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예상 프로그램과 일정(안)은

- 제1코스: 영주 소수서원, 안동 도산서원, 병산서원
- 제2코스: 경주 옥산서원, 대구 도동서원, 함양 남계서원
- 제3코스: 장성 필암서원, 정읍 무성서원, 논산 돈암서원

으로 하고, 세부 일정은 기획 조정하되 대체로 서원 소개[안내], 건물, 경관, 건축 특성, 제향, 자료 문서 등 [탐방 체험], 제향인물 및 다양한 역사, 활동 설명[특강, 토론], 사색 체험 등등으로 구성하여 각 서원의 특화점이 강조되면서 한국 서원의 공통적 성격이 이해되도록 하면 좋을 듯하다.

· 2안 「**테마별 서원 연계 프로그램**」: 이 기획안은 한국의 서원 특성을 테마로 한 연계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이 지닌 특징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공감하며 이와 관련된 강의와 심화, 토론을 진행하는 귀중한 활용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한다.

이 프로그램은 자원의 특별한 성격과 가치를 연계된 서원을 탐방하면서 연속 체험하고, 서원별 비교 체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대체로 테마는 교육 강학, 경관(구곡) 문학, 건축 당호, 제향 의례, 인물사상과 학맥, 도서출판 기능 등으로 세분할 수 있을 듯하다.

대상층은 30명 내외로 서원 관련 유림이나 제향인물의 후손, 서원관련 연구자, 전통문화 관련 동아리, 서원문화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등으로 구성한다. 연중 6개 테마로 전·후반기 2회씩 12회를 운영하며, 매월 1회 6개 주제 연속으로 1박 2일(대상 서원은 동선과 주제에 따라 재선택)한다. 테마별로 특별 강사 및 인솔자를 정하고, 관련 자료집 제작 배포 및 테마별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면 좋을 듯하다.

프로그램 일정계획은 상세하게 다시 구성하여야 할 것이지만 기획과 구상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테마를 학맥, 건축과 경관, 전통 강학과 교육, 제향과 의례, 장서·책판과 고문서로 정한다면 매월 주제와 해당 서원을

- 1월, 7월: 교육 강학: 도산, 소수, 옥산, 도동, 무성서원 등 연계
- 2월, 8월: 경관(구곡) 문학: 소수, 도산, 도동, 옥산, 병산서원 등 연계
- 3월, 9월: 건축 당호: 옥산, 도동, 필암, 남계, 병산서원 등 연계
- 4월, 10월: 제향 의례: 소수, 도동, 병산, 돈암, 무성서원 등 연계
- 5월, 11월: 인물사상 학맥: 도산, 옥산, 필암, 도동, 돈암서원 등 연계
- 6월, 12월: 도서·출판: 소수, 옥산, 도산, 필암서원 등 연계

등으로 선정하여 일정과 동선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제시하여 본다면 ‘書院의 山水와 講會 및 山水實景’ 체험으로 테마를 잡았을 경우 대상 서원을 도산서원(天光雲影), 옥산서원(風月無邊), 필암서원(廓然大公), 도동서원(秋月寒水), 남계서원(吟諷詠歸), 병산서원(翠屏晚對) 등으로 하여 특화된 서원 주변의 경관과 서원의 강회, 시회를 함께 열어 그 성격을 이해하고, 서원 경관과 역사 인물을 노래한 시문을 정리, 소개하고 참여자들의 창작 발표를 겸하는 방안 등도 좋을 듯하다.

· 3안 「**한국 서원유림 교류회**」: 이 기획은 9개 서원의 원임과 유림들의 교류, 연계 프로그램(9개 서원연합회 주관)으로 계승, 활용의 성과와 과제, 방향의 점검 등과 서원별 역사문화 특성과 보존 관리, 계승, 활용의 방향을 협의하고 교류하는 모임이면 좋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세계유산 지정과 함께 권유 받은 한국의 서원문화 발전, 계승을 위한 사후 관리와 운영에 따른 제 문제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면 좋을 듯하다.

대상과 주 참여자는 9개 서원별 5~6명으로 30~40명 내외로 하고 관련 서원 전문가와 보존관리단, 지자체의 관련 공무원이 함께하고, 1박 2일의 연수와 답사로 지역간 교류를 겸하여 영남권과 호서·호남권, 으로 나누어 연 2회, 통합 교류 2회로 9개 서원이 분담하여 개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개최하는 서원에서는 해당 서원의 제향과 의례, 연혁과 건물 안내해설(전문가, 서원 장의) 자료를 준비하고, 공통의 연수 주제와 초청특강, 발표자, 토론회 준비를 하고, 현대적 의미 계승에 대한 분임토론을 하면 그 의미가 더욱 증대될 것이다.

·4안「한국 서원문화축제」개최: 마지막으로 9개 서원이 교류, 연계하는 한국의 서원문화 축제를 9개 서원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한국서원의 특성을 테마로 매년 특화된 주제로 이벤트와 축제 개발하여 이를 통하여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가치를 알리고, 계승과 활용, 보존관리를 지속화 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조선시대 서원문화를 매년 주제별로 특화하여 기획하고, 이를 통하여 서원문화를 재조명, 널리 알리고 전국 9개 서원 관련 유생들과 서원관련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 서원, 인물 관련 학술회의(국제, 학회) 개최
- 서원관련 문화 답사, 기행
- 특화된 서원문화 이벤트 개발  
(도산 별시, 강학거점례, 사액봉행제, 제향의례, 상소활동 등)
- 9개 서원 홍보와 전시
- 영상, 예술 공연, 책자 발간

등을 구안하여 조직화하고 개최는 매년 1회로 하되 지역, 혹은 서원별로 교체하여 진행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이상 간략하게 향후 9개 서원별 계승과 활용, 그리고 9개 서원의 연계 활용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안하여 보았다. 물론 이 제안과 방향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9개 서원이 공동으로 이 방안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한국의 서원문화가 올바르게 가치 있게 전승, 활용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시 주목해 보면 한국의 서원은 자신들이 존경하고 멘토로 삼는 스승의 연고지에 후학과 문인들이 건립하고, 제향과 함께 그 정신을 이어갔던 선비들의 활발한 문화활동 공간이었다. 서원은 제향인물과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별, 학맥별 독특한 사상, 교육 방식, 운영 모습을 지녔고, 지성인들이 접촉, 교류했던 거점공간이자 상징적 기구로 여론과 공론을 결집하고 실현하는 기능도 하였다.

그런가하면 제향의례를 비롯하여 사회교육과, 도서관과 출판 기능 등 여러 문화적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지성문화의 요람으로 서원에 전해지는 역사, 교육, 제향, 무형의 문화유산이 지닌 전통적 가치는 현대사회에도 계승, 활용해야 할 가치와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9개 서원은 중국이나 일본·베트남과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특성을 잘 보존·정립한 사례로, ‘한국의 서원’에 깃들여 있는 교육과 정신, 그리고 문화적 전통은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고, 이제 한국의 문화 브랜드로서 거듭나게 된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지성과 도덕적 실천, 어른스러움의 대명사였던 조선의 선비문화가 서원문화를 통하여 자랑스럽게, 그리고 미래 경쟁력으로 되살려지기를 기대하여 본다.

## □ 참고논저 □

- 이해준, 2009, 「유교문화 자원화를 위한 연구방법론」, 『충청학과 충청문화』 제9권,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09, 『유교문화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도산서원, 2009, 『선비문화체험 수련, 도산서원』, 문화체육관광부
- 이해준 외, 2010, 『서원보존·정비 관리방안 연구』, 문화재청
- 이해준, 2011, 「한국 서원 유형·무형유산의 특징」, 『한국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국가브랜드위원회
- 이코모스, 2011, 『한국 서원의 국가브랜드화 방안 및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국가브랜드위원회
- 이해준, 2013, 「서원문화 원형콘텐츠발굴과 특화방안」, 전남문화원연합회
- 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15, 『한국의 서원(9개 서원별) 특화프로그램 계획』.
- 이해준 외, 2018, 『한국서원의 전통가치와 현대적 계승』, 한국학중앙연구원(공저, 책임).
- 이상해, 2019,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 과정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 『한국서원학보』 9호, 한국서원학회.
- 이배용, 2020,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선비정신」, 『서원 - 어진 이를 높이고 선비를 기르라』, 국립전주박물관.
- 이배용, 2020,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 가치」,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백서』,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 이상해, 2020,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의 문화유산 가치」,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백서』,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 이해준, 2020, 「한국의 서원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방안」,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백서』,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 한국의 서원 국제학술대회

토론 녹취록

## 2020 세계유산축전 한국의 서원 국제학술대회 토론 녹취록

2020.10.29.(목)

박성진(사회자) : 이제 종합토론을 속개하겠습니다. 기조강연과 네 분의 발제를 모두 들었습니다. 세계유산 지정의 의미와 향후 방향, 그리고 지성사적 가치와 과제, 보존과 활용이라는 문제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배용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님께서 주관하시어 종합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배용(좌장) : 안녕하십니까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이배용입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진행에 있어 내용도 짜임새 있지만, 시간도 정확히 지켜 주시어 학술회의 일정에 차질이 없게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전과 오후, 2부까지 사회를 봐주신 박성진 국장님께서 사회를 잘 봐주셔서 오늘 체계적이고 유익한 학술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자로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미래도시환경연구원 사무총장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모임에서 함께 했었으며, 한국을 잘 아시고 한국을 사랑하셔서 초기엔 발표자로 모시고자 하였으나, 일정이 바쁘시고 준비기간이 촉박하여 토론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으로 류한욱 회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서원 협의회 회장으로 계시며 안동 병산서원 대표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감격적인 쾌거를 함께해 주셨고, 현장에서 공수, 읍례할 때의 그 구령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류한욱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왕기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국가브랜드 위원장일 때부터 서원의 등재를 구상하고 추진할 때 이해준, 이상해 교수님과 함께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코모스한국위원회 회장으로서, 서원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다음으로 문화재청 김종승 활용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문화재청과 등재할 때까지 많은 일을 함께했고, 활용과 보존이 저희의 과제가 된 시점에서 앞으로 가장 큰 도움을 주시고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그다음으로 경상북도 류문규 문화유산과 사무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원을 등재할 때 각 서원의 유립, 지자체, 문화재청, 전문가, 학자분들께서 혼연일체로 10년 가까운 세월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에서 오신 류문규 사무관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으로 조재모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조재모 교수님께선 이코모스에서 설득력 있게 답변도 해주시고, 아제르바이잔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스크린 하는 등의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한

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전문가의 역할이 컸고, 조재모 교수님께서 열정적으로 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가 과제일 것입니다. 2019년 7월 6일, 한국의 서원이 등재되기까지는 노심초사하는 1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동안 회고를 나누며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에 대한 기도보다도 한국의 서원 등재를 위한 절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해주신 많은 위원님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 코로나로 인해 총회가 열리지 않은 올해가 아닌 작년에 한국의 서원이 등재된 것은 천운이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감회가 있습니다. 서원을 방문하면 한 가족 같은 반가운 분들을 만난다는 설렘이 있습니다. 우리가 탈 없이 협심하여 해 온 것이 결과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인생 공부를 하고 학문에 대한 진지함도 갖고,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사명감이 국내와 세계에 미칠 수 있도록 함께 열정을 모은 것, 그 자체가 인생의 큰 보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이 그동안 한국의 서원을 통합해서 보존하였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이 된 만큼 세계유산센터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서원,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셔서 막바지에 있습니다. 명칭을 바꾸고, 기능과 역할을 더 확대하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과정에선 지자체와의 더 원활한 의논과 조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통과되어 우리가 한국의 서원(9개 서원) 통합체로 거듭나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육성에 대한 지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1주년을 맞이한 축제로 많은 서원이 꽃이 피듯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보람을 가졌는데, 앞으로도 이것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1주년 등재 축제는 일시적인 것이고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이 된 만큼, 이상해 교수님, 이기동 교수님, 한필원 교수님, 이해준 교수님께서 발제에서 이야기 하셨듯, 더 활발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며, 우리 교육적 위상이 세계의 신뢰를 받고 세계유산센터에서도 우리에게 대한 더 큰 신뢰가 있으려면 지원 속에서 한국의 서원이 연속유산으로서 공통성을 갖고 특성을 살려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여 서원 진흥 육성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참되고 보람있는 교육의 길, 우리의 바른 심성의 길을 찾는 그런 역할들이 지원이 없으면 힘들기에,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아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우선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한국 이름으로 이만열 교수님께서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의미에 대한 부분에 대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토론자) :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뜻깊은 우리 서원의 역사, 현대, 미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서원의 필요성,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필요성이 제공되는 데에 관하여 몇 가지 간략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발표를 보고 들으면서 느낀 것은 관광과 교육의 혼선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서 예산 확보와 활용에 있어서 서원을 끝까지 관광 목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원은 원래 관광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육, 그다음으로 건전한 문화,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 역할하는 곳이고 원래 있었던 교육, 도리, 도덕, 그리고 교육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시민의식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예산 확보는 쉬

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관광만 생각하고, 예산과 지역의 국제화를 위한 홍보 역할만 생각한다면 예산 확보는 매우 힘들고 수많은 사람이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 안에서 사업성과 도리, 도덕과의 대립 및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서원 운영은 본래 사업이 아니며 수익이 나오는 것이 아닌, 계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 역할은 고대부터 학자, 그 다음엔 시민과 올바른 길을 가리키는 역할이었으며 과거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임진왜란이나 매우 힘든 상황에서도 매우 헌신적, 학술적, 도덕적, 교육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 전통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서원은 놀이공원이 아닙니다. 시민과의 호흡, 교류가 중요하지만 재미있게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되고, 그러한 역할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향수하고 모범에 비교가 있습니다. 한국의 서원은 향수의 대상이 아닌 모범적인 교육 기관으로 한국의 향후 교육 혁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수능이라는 시험, 대학교 시험이 중심이 되었고, 옛날처럼 깊이 생각하고 푸는 질문은 없이 학원만 다니고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됨으로써 교육 자체의 수준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서원은 그에 반대에 있고 깊이 생각하는 학문이며, 우리 교육은 항상 사회나 우리 공동체, 우리의 깊은 모순에 대한 해결 방법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우리는 지역경제보다 지역의 지혜, 경제 공동체 의식이나 깊이 생각하고 내년 예산이 아닌 장기적으로 100년, 500년 후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초등학생의 방문이 아닌 지방의, 지역의 성인들이 모여 깊이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이는 원래 서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현대화 시킬 필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목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의 해외, 즉 국제적인 인정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 국제화에 있어 여러 의미에서 지난 유네스코의 인정이 상당히 의미 있지만, 결국에는 한국인에게 이상적으로 우리의 한국문화의 재발견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의 수많은 문제점, 사회, 경제, 가정, 환경문제, 국제, 외교 안보까지도 유교 사상의 위대한 전통으로 어떻게 다시 해석하고 청원하고, 직접 응원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서원에서 고민할 수 있고, 서원과 같이 공동 연구하는 활동을 하며, 서원의 원래 가치를 검토하고 수 많은 시민에게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소개하여 아마 많은 사람은 이해할 수 있고, 서원의 위대한 전통을 한국의 현대에 중요하고 한국의 미래에 필수라 느끼게 된다면 예산 문제는 스스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전망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배용(좌장) :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서원의 가치와 미래에 대해 아주 정확한 지적 해주셨습니다. 이전에 외국인 기자와 동행하며 서원을 방문했을 때, 서원이 너무 편안하고 교육의 답이 서원에 있는데 한국의 교육에 문제가 있으며 국민이 서원을 잘 모르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교육자로서 이 서원의 가치를 알고 세계화하는 일을 함께 했지만, 국가에 기여하는 일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퇴계선생께서 당대에 합당해야 하되 과거에서 너무 멀어지면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듯, 우리가 변화할 것은 변화하되 근본적 가치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으로 류한욱 회장님께서 서원 협의회를 대표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류한욱(토론자) : 서원 현장에 있으며 현황사항을 몇 가지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계유산 9개 서원 협의회 의 회장으로서는 9개 서원을 대표해 세계유산을 소유하고 그 가치를 현장에서 지켜가고 있으며, 후대에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주체로서 한국의 서원 문화에 대한 지속 가능한 보존과 활용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려 합니다.

첫째, 보존관리 문제입니다. 지난 4월, 안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병산서원 바로 앞까지 불길을 뻗쳐 금방이라도 화마가 서운을 덮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강하게 번져오는 불길을 보며 가슴 졸였던 기억이 생생한데, 한국의 서원은 서원 입지 조건에 의해 화재와 같은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고 보며, 좀 더 집중적인 화재와 같은 재난에 보호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서원의 인접하고 있는 산림에 방화벽을 설치하여 나무를 제거해 주시고, 소화전과 연결된 소화 장비, 물대포, 스프링클러 등을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에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서원 문화재 관리 인력 채용과 인력이 상주해있으면 보존관리가 실효성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각 서원에 있는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고직사나, 그 사람들이 사묘와 서원을 관리했으나 지금은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서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기능화 시켜 서원을 관리하면 유산의 노후를 관리하는 문제에도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관리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서원 가치를 위한 서원 문화 활용방안,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기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서원은 조선시대에 향촌 사회 문화를 중심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곳이지만, 사회의 급변하는 변화 교육제도 개편으로 서원 교육은 축소되고 존립 근거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원의 기능은 교육기능이지만, 이를 복원하기 위한 과거의 계승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현대에 맞게 재구성, 재창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함을 통해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춘 21세기형 서원 문화를 새로이 재창조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에 묶여버린 서원은 원형 보존과 현재 활용을 두 가지 축에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문화유산이 거듭날 수 있는 공간을 재창조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도산서원의 선비문화수련원과 같은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이 지닌 가치와 관광에 맞게 교육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계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전통사회에서 서원의 설립 목적과 기능이 21세기형 서원 문화를 새롭게 재성립 할 수 있는 연수시설, 예를 들어, 소규모의 인원을 시설에서 서원을 같이 이용해 교육할 수 있는, 각 서원에 특성화된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병산서원의 경우 서애 선생의 충효사상 교육을 지금도 연간 20회씩 1박2일로 서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이나 겨울의 난방 시설이나 위생시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시설이 구비되어야 서원이 연계해 할 수 있고, 숙박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을 구축해서 각 서원 특성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향 기능 전수 및 이수 과정 제도가 필요합니다. 서원 기능은 존현양사에 있다, 그러나 서원 제향 기능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없이 전승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라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원의 가치를 매년 이어오고 있는 제향 기능은 유지했습니다. 중국 서원의 경우 존현양사의 서원 기능은 단절되어버렸지만, 우리 서원의 경우 교육기능은 현대적으로 개편되었지만 제

향기능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원의 제향력을 이어갈 수 있는 유생들이 없어 존폐위기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서원 제향 기능을 이어갈 수 있는 전래제례 재생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든다면 세계유산 종묘와 인류문화유산 종묘재래악과 같은 방식으로 무형 문화유산 전승 방안과 같은 제도를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9개 서원의 제향하고 있는 무형문화재로 진행하여 그 사람들이 제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원의 등재를 위해 백록동 서원을 방문하여 제향기능은 어떻게 하나 물어보니 곡부에서 도와주고 있으나 기록과 제향에 대한 자료가 없어 못하고 있으니 한국에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서원들의 제향은 이어져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치를 이끌어가는 계승 보유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9개 서원의 보관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넣음으로써 서원지를 발간하거나 서원 자료를 번역 발간하는 것을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서 주관하였으면 합니다. 이것을 제안해서 각 서원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서원 문화를 발전, 계승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무조건적 계승이 아니라 현대 삶 속에 녹아들 수 있고, 쉽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수용할 수 있는 21세기형 서원 문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개 서원 협의회를 대표하여 9개 서원이 맞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서 우선 개선되어야 할 문제를 제기하고 이 발표문을 토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용(좌장) :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서원을 직접 맡고 운영하시면서 느낀 진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지난 10월 1일 도산서원 초헌관으로 참여하며 이들의 절차를 밟고, 그 전 3월 향알이라는 초하루 보름 하는 알묘에도 참여했을 때,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우리의 모든 역사가 한눈에 닿아서 서원이 세계유산이 되었구나하는 감회가 있었습니다. 이 제향 기능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젊은이들이 함께 하면서 이것이 전승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문을 잘 아는 어른들은 있지만, 젊은이의 수혈도 필요한 시점이기에 고전도 번역하고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역사관이나 교육관이 현재 서원마다 조금씩 다르기에, 이를 간파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조재모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조재모(토론자) : 사실 세계유산이 아니더라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 우리 서원이 훌륭한 유산이라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세계유산으로 서원을 등재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워낙 중요한 학술 연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긴 유산의 등재 과정을 통해 조사, 정리, 연구의 기회를 더 깊이 얻을 수 있었다는 지점들도 참 의미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우리가 함께 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인류 모두가 보호해야 하는 유산이란 것은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것이지만, 내것이 아닌 상황이 되었고, 한편으로 감사한 명예이고 영예이지만, 중요한 사명감이 다시 다가오기도 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까지 서원에 모든 것들을 잘 갖고 와주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활용에 관계되는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이렇게 소규모로 모

여 유튜브로 중계되는 상황을 미리 생각했다면, 어느 서원 누마루에 앉아 회의를 진행하고 중계했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선택을 하기가 어렵고, 그 어려운 지점이 바로 우리가 활용을 논의할 수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지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학술회의가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소개 된다면, 그간 서원이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매체의 소비되었던 방식이 경관으로, 어떤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장면으로 소비되었고, 제향을 하시는 모습, 강학을 재현하는 모습이 그 프로그램 자체라기 보다는 어떤 장면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소비되어 왔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학술적 토론 장면 자체가 서원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서원이라고 하는 문화유산이 사회적으로 소비되는 방식을 보면 이미지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관광의 대상으로서, 혹은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멋진 장면으로 소비가 되어 가고 있고, 그 지점에서 그런 방식의 소비는 모자란 상황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만 유산의 가치를 중심으로 본다면 인정받았던 서원이라는 유산의 가치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또 유지시킬 수 있는 방식의 활용이 우리에게 더 전략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을 활용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내리기 보다는 우리가 서원을 서원답게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토론으로 온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이 계시는데, 서로 모르지만 아마 그런 배려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약간의 입장을 서로 대변해야 하는 그런 분류인 것 같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서원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는 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경험을 다시 되돌아해보면, 우리가 등재 신청서상에서의 등재 기준은 3번과 4번으로 제시했었고, 4번이 비록 공식적으로 인정 되진 않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도 세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서로 공유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원을 흔히 향교와 비교를 잘 하는데, 건축적인 세팅이 굉장히 유사한 지점이 있고 교육적 기능도 유사합니다. 다만 향교는 도시 속에 존재하는 세팅, 지금 그게 대도시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읍치와 붙어서 만들어진 세팅이기 때문에 지금 활용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일상적인 활용이 가능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서원의 경우 조금 더 한적한 위치에 입지를 하게 됐고 그런 세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매일 글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서원을 상정하기 그리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험으로서, 순간으로써 경험 공간으로서 활용되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향교가 도시 속에 세팅이 되어 있다는 지점은 지금 도시 유산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올해 들어 제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대구의 구도심의 상황을 보더라도 두 가지 큰 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코로나 사태가 도심의 공간에 상업적 기능을 피폐하게 만듦으로써 상업적 공간들이 제대로 버틸 수 없게 되며 그 자리를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 이런 것들이 치고 들어오면서 도심 문화재들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서원의 경우 시가지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4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4번 등재 기준이 대해서 주장 했었던 내용은 서원 건축이 가지고 있는 배치 정형성 문제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유산이 등재되고 나면 많은 유산이 겪는 문제입니다만, 심지어는 유산 구역 내에서는 새

로운 건물을 지으려 시도한다거나, 템플 스테이와 같은 케이스가 가장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유산을 활용해서 관광자원으로 확대하고 싶어하는 욕심들은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서원의 경우 정형화된 배치의 기법, 배치의 유형이라 하는 것은 서원에 계신 분들이나, 학자나, 등재 과정에서도 공유하고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형성을 해치는 방식의 어떤 무리한 시도들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찰 내에 템플 스테이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게 사찰의 공간에 본질을 해친다 생각하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서원에 새로운 것을 짓는다는 것은 서원답지 않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서원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때는 새로운 시설과 연동시켜서 생각하기보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서원의 건축, 서원의 조경과 주변 상황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항목으로 생각하고, 그 속에서 활용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정돈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산 가치를 유지해가면서 강화해가면서 이 공간 서원이라고 하는 공간을 장치로서 활용하고 서원이 갖고 있는 지역 중심의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해 본다면, 항상 우리가 관광을 생각하면 전국, 세계 위로 생각합니다만, 서원의 본질적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지역에 오리엔테이드 된 이런 방식의 활용 방안들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논의는 다른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유연하게 진행되기 위해선 결국은 이해당사자라고 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이해당사자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될 때는 개발이나 보존이나, 문화재 주변에 있어서의 불편함, 유리함 이런 것들로 이해가 되지만, 그 유산 가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장소의 활용에 대해 본다면, 이분들이야말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하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량의 강화, 구축이라고 하는 지점이 다른 분들도 그러합니다만 서원에 관계한 분들, 주변 주민들, 이런 분들로부터 유산을 활용하는 역량 구축지점이 아닐까 생각 들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서원을 등재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서원이 발생했지만 조선화 시키고 우리가 선택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시스템, 시설로서의 서원, 사림의 거점으로서의 서원을 생각했었고 그것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데에 중요한 기반이 된 논거들이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많은 유산이 비슷한 길을 걷게 됩니다.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길들을 걷게 되기 마련인데, 우리가 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은 논리처럼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상정하고 구축해 나가느냐가 우리 서원이 또다시 한번 더 도약해 나갈 수 있는 미래가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의 시간이 그런 미래를 만들어나가는데 좋은 도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배용(좌장) : 네. 감사합니다. 보고서 작성하는데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셔서 속속들이 서원의 가치와 앞으로 해결 해야 될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옥산서원에서 한중학술대회를 화상으로 했을 때 의미가 정말 있었습니다. 남평시와 진행했는데, 코로나가 빠른 시일 내에 끝나야 하긴 하지만, 지속된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9개 서원을 화상으로 송출하는 방법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우리가 서원이 개발, 보존, 활용 이런 부분에서 세계유산센터와 약속한 것이 있고, 앞으로 이것을 잘 통합 관리하라는 그런 신의를 가지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서원이 계속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사명이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현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이왕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이왕기(발표자) :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하신 여러분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발표하신 발표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여기에 덧붙여 평소에 요런 것들은 좀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도 덧붙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카트리나 샤프레이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타 문화권에 있는 전문가들이 서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잘 들었고, 그것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원을 좀 더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데에는 국내의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외국의 전문가들을 이 서원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서원 연구를 하면 다른 데까지 파급효과를 불러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법이 어떨까 합니다. 이것처럼 학술대회에 참여해 발표하게 한다던가, 외국에 돌아가서 자기 공부를 통해 서원에 대해 발표를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또 여러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본인이 가진 서원에 대한 지식을 발표하게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좀 더 넓게 우리 서원이 좀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발표문 내용 중에 외국인 그리고 외국어로 된 여러가지 홍보 사례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심도있게 학자들로 하여금 발표하게 된다면 신뢰성도 있고 많은 호응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서원 홍보, 교육 이런 것들을 어떻게 누가 담당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혹시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좋겠고, 하고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이라고 하는 명칭이 우리나라 670개가 되는 서원을 통합 관리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미 9개 서원을 통합관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혹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체 서원을 통합, 관리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또 통합보존관리단이라 하니까 서원 보존과 관리만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통합보존관리단에서 이런 행사도 기획하고 하는 일이 많을텐데, 이름이 그렇게 돼서 혹시 오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명칭을 바꿔서 보존 관리는 당연하고 여러가지 서원과 관련된 교육, 홍보, 또 관련된 정책, 이런 여러가지 일들을 좀 관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보존센터, 보존 관리 센터라던가, 그렇게 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서원을 전문적으로 여러가지 일들을 담당하는 그런 중심관리단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두 번째 한필원 교수님이 서원 지속 가능한 보호관리 방안 말씀을 꼭 듣고 내용도 읽어보고 좋은 아이디어, 좋은 내용이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마지막 말씀하셨던 지역 주민의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분포가 대부분 노령화되어 참여할 수 있는 적극성이 어떨까 하는 걱정이 들었으며, 이분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과연 그 노령화된 분들의 참여도를 어떻게 확대하고 높일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역을 넓히면 조금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 사전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영향을 높여서 참여시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홍보와 같은 것들이 강화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개진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다음으로 전 이해준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도 주셨고 더 적극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면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걱정이,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대학원 하고 연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추세가 문사철이 점점 축소되어 사람들을 어떻게 확대하고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걱정이 한편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사철과 조금이라도 연관되는 다른 사람들도 참여시키는 방안은 없을까, 조금 쉽게 연결시키는 방안,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런 서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층을 확대하는 방안,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래서 전문 분야별로 층을 나눠서 이건 전문적인 분야, 조금 노력하면 전문적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 이건 조금 방향을 바꿔 다른 분야로 우회해서 참여시키는 방법, 그렇게 층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원을 만들 당시 만든 사람들의 생각, 또 그것을 운영했던 후의 서원 관계자들이 지금 서원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상상해 봤을까요? 사회가 물론 이렇게 변했으니 따라가지만, 지금 우리들이 앞으로 백년 이백년 후에 서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걱정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서원이 운영될 때 혹시 그것이 굳어져서 나중에 서원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관광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아니면 정말로 교육의 전당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여러가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사회의 변화 추세로 본다면 지금 대학교육도 심지어 대면 교육의 점점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서원 현장에 가서 그러한 교육을 받는 것이 정말 강화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한국의 서원 통합 보존관리단은 한번 깊이 이 분야에 대해 걱정을 해주심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배용(좌장) :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서원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실사도 여러 차례 하며 이 코모스한국위원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왕기 회장님도 한필원 사무총장님께서 열심히 잘 도와주셔서 꽃을 필 수 있던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비정상적인 시기라 외국인들이 오는 것도 제한되어 있고, 거의 불가능할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일본, 중국 청년들이 함께 서원에서 왕래하며 미래를 논의하는 그런 이상이 있는데, 지금 특히 이왕기 회장님이 얘기하신 더 앞으로의 미래, 더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지금 서원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 더 절실해진 부분입니다. 그다음 앞으로의 서원이 앞날의 발전적 역할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김종승 과장님이십니다. 김종승 문화재청 활용정책과장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종승(토론자) : 문화재청 김종승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지금 제가 대표로 있는 것 같아 무겁습니다. 류한욱 회장님, 서원에서 화재 재난 대비 서원의 인력, 그리고 서원의 제향기능 이수 문제, 서원 활용의 인프라 구축, 여러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은 답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수님께서 서원이 단순히 관광 목적으로 사용되면 안된다, 본연의 기능을 해야한다, 그리고 조재모 교수님께서 여러 이해 당사자들, 지역 주민들을 고려해야한다, 그리고 우리 이왕기 교수님, 어떻게 하면

더 널리 알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서원에 대해서 앞으로의 기능을 할 것인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토론시간 전 주제발표와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보고 듣고 느낀 점들도 많았습니다. 우선 지금 문화재청에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서원뿐만 아니라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을 201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처음엔 향교 24개 서원 14개 38개 사업, 국비 12억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올해 향교 80개, 서원 33개, 13개 사업에 대해서 50억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모가 끝났으며, 향교 85개 서원 31개로 서원엔 세계유산 선정된 한국의 서원 9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116개의 향교, 서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국비 50억 6,8천만원으로, 또 지방비를 합친다면 130억 규모로 향교, 서원 활용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의 주된 목적은 정신 문화재의 본래 가치와 진정성을 계승하자, 현대적으로 재창조하자 하는 이러한 취지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 일반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활용에 대한 의미를 너무 간과한 것으로 인식되면 안된다 말씀드립니다. 또한 활용의 개념을 너무 강하게 잡아선 안되고 단순하게 공개해서 찾아오고, 느끼게 하고,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다양하게 봐야한다, 그러한 활용들이 어떤 측면에선 관광으로 볼 수도 있고, 교육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예카트리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원이 있는 공간은 자연적으로 경관이 좋습니다. 한국의 건축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찾는 힐링이 되는 공간으로서의 공간 기능도 해야 하고, 그렇기에 와서 느끼고 체험하는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적 기능을 제고해야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청소년, 청소년의 현대식 교육에 부족한 부분들을 서원에서 보완해 줘야한다는 그런 측면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동양, 한국적인 정신들을 그런 측면에서 보완해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예절교육의 측면도 서원을 통한 활용 교육을 통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자체에 있는 그 활용 현장에서는 특히 교육청과 협업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과 협업해서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같은 것을 통해 여러 활동이 잘 되고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유산으로서의 전략목표, 소통이 중요하다, 공동체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활용 측면에서 그것이 저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필원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활용이 외부에서 찾게 하는 것이 주목표가 아닙니다. 저희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지역이 우선순위이다, 지역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 지역주민이 필요로하는 사업들을 먼저 해야하고, 그것을 통해 서원이 살아있는 것이지, 다른 도시, 지자체에서 찾게하는 것이 첫번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활용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이해준 교수님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저도 한편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할 때, 민간단체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이유는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들이 전문성 있고, 현실을 알고, 이런 사업들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지역 민간단체 공모시 가점을 줍니다. 한편으로는 전문업체들이 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이런 사업의 중심이 아니라 지역 풀뿌리

중심의 민간단체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느낀 점은 특히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은 지역 문화재에서 하고 싶은,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년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을 하는 자리에 특히 향교 서원 교육에 특별히 서원도 포함되니까, 그런 자리에는 세계유산 서원 가치, 그리고 보존 관리 방향, 앞으로의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이 있는데, 이해준 교수님의 활용 프로그램이 차별성이 없다는 부분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인가? 저희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신망 있는 기관에서 관련 단체로 하여 그런 방향성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차별화를 시킬 것인가, 청에서는 중앙에서 관여를 하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활용 계획에 있어서, 지역의 민간 단체 그 다음에 지자체 공무원, 서원의 관리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방향성을 같이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현재 보존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서원의 활용 프로그램을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너무 무게감을 가지면 안되기에 찾게끔, 열리게끔, 느끼게끔, 아울러서 사회적 기능도 구현하게끔 해야 합니다. 너무 한 방향으로만 하면 안 되고,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으로 이러한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활용단체 교육에서도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세계유산에서의 가치 구현을 할 것인가 하는 분야에 대해 전문가 풀을 확보해서 교육을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용(좌장) : 네,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내내 문화재청장님께서 함께하셔서 서원에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공유해주셨고, 지금 토론자로 활용정책과장님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나아갈 길에 많은 고민들을 함께 하셔서 조금 더 우리의 서원 변화에 바람직한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전 박물관이 큐레이터제도가 의무화되어 박물관을 유지하고 또 활성화하는데 기폭제가 되었듯이, 서원에도 유사님들도 계시지만 전문적인 관리자, 해설사로는 충족이 힘드니, 제도적인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서원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국가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류문규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팀장님이십니다. 9개 서원이 5개 도와 관여되어있지만 경상북도에만 서원이 5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가까이 해온 동안 경상북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일사분란하게 함께 협조해서 이끌어 왔으나 특히 경상북도의 의지가 큰 힘이 됐습니다. 류문규 문화유산팀장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류문규(토론자) : 저는 경상북도 문화재활용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업무부터 문화재 지정, 활용 등등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지자체를 대표해서 라기 보단 이사장님 말씀하셨듯 9개 서원 중에 경북에 4개 서원이 있고, 도동서원이 대구에 있어 저희 지사님께서도 대구경북 통합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5개의 서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선생님들의 좋은 말씀을 듣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서원의 가치라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적 가치를 중요시 할 수 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미래지향적 가치로 나아가서 발전하고 계승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오늘의 주제는 활용에 맞춰진 것 같습니다.

저도 지자체에 몸을 담고 있는 상황에서 보존 관리와 활용 측면에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예러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서원의 보존 관리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투 트랩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과 같은 하드웨어적 사업들은 저희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자체에서 보수사업을 하고, 활용과 홍보를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듯, 9개 서원의 연합, 통합적인 관리를 요구했기 때문에, 지자체라는 것은 개별 단체장이 관리하다 보니 통합관리가 사실상 잘 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합보존관리단에서 잘 수행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지금 이전에 등재된 유산도 있지만, 준비 중인 유산도 있습니다. 서원의 경우 아주 모범사례로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보람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활용 부분에 제가 평소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저희도 경북도청이 대구에 있다가 안동으로 이전된 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소규모 도시에서 지역 젊은 학부모들이 예러 사항을 많이 이야기 하십니다. 교육, 인생 문제 등 가뜩이나 비대면 시대에 있어서 인간성이란 문제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우수한 서원이 많다 보니 지역이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서원과 연계해서 고민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병산서원도 있지만, 신도시에 있는 학교들과 병산서원을 연계해서 인성교육으로 진행하는 등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면 요즘 교육은 입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부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존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맞닥뜨린 고민은 류한욱 회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5월에 안동에 엄청난 산불이 있었습니다. 축구장 1000개 면적이 탔다고 하는데, 그 때 병산서원도 굉장한 위기상황이었고, 저희 공무원도 현장에서 긴장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느꼈던 것이 서원이 대부분 경관 좋은 곳에 위치하고 산과 같이 있습니다. 산불이란 것이 화재가 나면 정말 무섭습니다. 몇백 미터를 왔다 갔다하고 고속도로 하나를 뛰어넘을 정도로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다행히 바람이 병산 쪽으로 불지 않아 위기를 모면했지만, 앞으로 대형 산불이 일어날 경우 병산서원 뿐만 아니라 다른 서원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원별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소방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현실적 고민 사항은 개발 압력입니다. 예를 들자면, 병산서원을 들어가려면 비포장도로를 2km 남짓 들어가야하는데, 잘 보존해야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포장을 해야 한다는 지역주민의 불편 사항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 입장에선 원형 보존이 중요하고, 이런 고즈넉한 서원을 하나 정도는 갖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냐는 고민도 듭니다.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 하셨는데 지역의 지자체 입장에선 주민과 마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서원 같은 경우,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오셨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9개 서원 대부분에서 참석해주셨고,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가 고민하고 함께 머리를 맞댈 경우 서원의 미래는 밝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배용(좌장) : 네 감사합니다. 지자체는 현장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서원마다 조금 문제점들도 다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꾸 머리를 맞대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듯이 상주 관리자가 정부에서 파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병산서원 산불은 저희도 잠을 못 자고 새벽에 내려갈 정도로 안타깝게 했는데, 다행히 지나갔지만, 500년간을 잘 보존해서 세계유산이 된 것이니 앞으로는 조금 더 현대문명에서 잘 보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헤이하지 않는 정성, 이런 대처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토론자의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 혹시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이 한마디는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여자분들도 오늘 소수 규모이지만 진지하게 하루종일 함께해 주셔서 말씀하실 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해 교수님 특별히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해 :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목록 등재의 기준에서 요구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등재된 것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중요한 것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그중에 현안이 바로 보존, 관리, 활용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좀 더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본다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더 증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오늘 해결책을 이야기 한다가 보다 향후 같이 머리 맞대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 봅니다. 그다음에는 사실상 관리 활용 관점에서 봤을 때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면 새로운 건물이나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힘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나 활용의 측면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유지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 다시 말해 서원 본래 환경은 저해하지 않으면서 들어가는 방안은 9개 서원의 통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편의시설이나, 사람들이 모여 활동을 할 때 기존 건축물만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해 타진해보고 서원 활동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계속해서 말이 나왔습니다만, 세계유산에서 서원이 중요한 것이, 사람과 관계되어 현 한국사에서 혹은 세계적 문제 입장에서 건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한 방안으로서 서원이 과거에 가졌던 여러가지 중요한 목표를 서원 활용에서 자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서원 활용 방안, 정비계획 등등을 수립할 때 고려할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배용(좌장) : 네, 감사합니다. 한필원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필원 : 오늘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활용 사업, 과장님께서도 협조를 해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느낀 문제는 활용 사업에서 주로 프로그램 성격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 교육 중심이고, 지성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좋은 말씀입니다. 더불어 제가 직접 활용 사업을 하는 것을 피상적으로 관찰했을 때에는 공간의 활용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풍 가듯 한다든지, 공간의 특성, 세계유산의 중요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이

해되고 활용되는 것 같질 않아서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실 때에 공간과의 정합성 문제를, 전문적인 분야이긴 할 것이지만, 프로그램체험도 중요하지만 공간 체험도 중요한 것인데 더 깊이 다뤄주시면 하는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갑현(참가자) : 저는 도산서원에서 강독유사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권갑현입니다. 오늘 좋은 발표, 토론 정말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용어적 문제입니다. 활용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주셨는데, 활용은 사전에 찾아보면 잘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활용의 주체가 외부 기관, 지자체의 경우라면 활용이 맞겠지만, 저희와 같이 서원에 몸 담고 있는 입장에선, 1년에 2번씩 제향을 모시고, 초하루 보름 알묘를 하고, 강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더 잘,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활용보다는 서원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기관으로 봐주시고 활용보다는 지원으로 부탁드립니다. 지원을 해 주시지만 역량이 부족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학예사라는 전문가를 각 서원마다는 힘들더라도, 같은 지역을 묶어서 3개 서원 정도에 한 분이라도, 우선 지자체에서 한 분씩이라도 배치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서원 자체 운영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지원이라는 용어는 아동 교육청이라 하다 아동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듯 어감상의 문제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활용이라는 용어는 재고해주시길 바라여 건의드립니다.

이배용(좌장) : 지난번 저도 각 서원의 제향이나 운영 시 가보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조달하시며 운영하시는데, 상당히 절차랑 규모가 체계적인데 운영에 대한 지원에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고, 열렸으면 하는 바람도 직접 뵈면서 느꼈습니다.

김윤수(참가자) : 반갑습니다. 남계서원 김윤수입니다. 이해준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서원들을 연계해서 문화관광이나 유적답사 코스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지역은 소수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옥산서원까지 하나의 코스로서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습니다. 실제 소수서원은 사액서원으로 만드신 분은 퇴계선생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번째가 도동, 남계서원인데 이 한원당과 일두는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동서원과 남계서원 사이에는 합천의 이산서원, 거창 도산서원, 수포대 일호정 해서 긴밀한 관광코스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연관해서 옥산서원을 도동서원에 떼는 것 보단, 도동과 남계서원 코스 중간으로 개발하고, 한국의 서원 9개 만으로는 부족하니 자매 서원을 지정하여 연계하여 사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창과 합천을 포함해 프로그램을 신설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돈암서원과 필암서원, 무성서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돈암서원 자매서원으로는 화양서원과 흥암서원을 지원하고 연계해 사업하면 하나의 훌륭한 유학답사 코스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무성서원도 담양의 기산서원, 창평의 송강서원과 같은 자매서원을 연계해 연결코스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배용(좌장) : 그 부분은 우선 세계유산이 된 9개 서원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원래 9개 서원 외에도 등재되지 못한 주변의 명망 있는, 보존되어온, 철폐가 되었거나 파손된 서원도 있습

니다. 이를 포함하자는 과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다음 과제일 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그 부분도 익히 말씀 잘 참조하겠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과제로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론자 중에서 끝내기 전에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토론자) : 한국 역사에서는 500년 동안 서원을 경제적인 수익이나 활성화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지혜로운, 현명한 사업 방식, 건전한 생활, 부모의 존경, 이웃에 대한 배려, 자식에 대한 사랑이나 건전한 사회 공동체를 위해 운영되었습니다. 서원을 관광 수익으로 평가한다면 서원의 원래 성격과는 맞지 않습니다. 한국 교육의 현재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 자격증, 기업에 입사하기 위한 자격증 등 원래 교육의 목적은 진리 추구 방법, 올바른 생활을 하는 도리를 터득하고 키우는 방법 등 자격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서원을 살리면서 한국 원래 있었던 교육의 위대한 전통을 다시 재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배용(좌장) :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바로 저도 이 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건축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제향인물들이 시대의 정신사를 이끌어서 앞날의 바른길을 개척하는데 가장 사표가 되신 분입니다. 9개 서원에 대하여 한 번 더 우리가 마음 속에서 우리나라는 존경심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임마누엘 교수님 말씀대로 지난 과거가 아닌 앞으로의 미래에 우리가 교육의 길을 닦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고, 다른 분야보다 서원의 인물들을 연구하고 교육적으로 계승 시켜도 정말 정직하고 정의롭고 모든 것이 서로 역지사지 배려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교육적으로 살아났으면 한다는 소망이 큼니다. 자연에 대한 경애로운 순리와 같은 것이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인간의 오만, 이기심, 물질 만능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서원에서 길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10년 가까운 세월에서 철회의 아픔도 있었지만, 서로 믿고 밀어주는 동안 총괄 업무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서로 간의 신뢰 덕분에 이것을 모두 극복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서원에 대한 자긍심, 우리가 후 세대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주는 데는 협력, 서로 간의 진정성, 이런 부분들이 세계인의 신뢰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선 9개 서원이 세계유산이 되어 그것이 더 빛을 발하면 다른 서원에서도 그 빛이 비추어 지리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좋은 발표, 좋은 토론을 해 주시고 진지하게 서원의 미래를 위해서 지혜와 마음을 모은 시간이 큰 위로도 되고 희망도 되고 보람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사회자) : 앉으신 채로 마감하겠습니다. 이배용 이사장님을 국민 총관이라 말합니다. 주옥같은 감성의 리더십으로 종합토론을 이끌어주신 것에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서원이 원래 천민과 지역의 유지들이 뜻을 모아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심이 되었듯 너무 하늘이나 중앙정부에서 돈 떨어지게 기다리지 말고 가난하고 청빈하게 운영하는 것을 모범으로 가라는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 서원 향교 활동을 지원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원 본연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에 가점을 주시고, 활용 사업에만 국한하지 말고 본연의 제향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므로 그러한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도 공모를 같이 받았으면 하는 점에 대해서 토론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문제였



습니다. 지자체간, 서원간 연계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가점을 주시면 교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동안 학술회의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과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한 2020, 세계유산등재 1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